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장, 중디엔, 다리, 호도협 정보

운남여행준비

2008/09/11 22:57

<http://blog.naver.com/jocky99/60055113927>

다리 리장 관련정보

http://www.kailash96.com/tibet_road_jun.htm

메리설산정보

운남여행준비

2008/09/11 20:28

<http://blog.naver.com/jocky99/60055109202>

<http://www.travelg.co.kr/tg16/40meilisnow.htm>

더친여행정보

운남여행준비

2008/09/11 20:22

<http://blog.naver.com/jocky99/60055109072>

더친여행정보

<http://www.travelg.co.kr/tg16/39degin.htm>

쿤밍에서 상그릴라(디칭)가는 뱅기 시간표

운남여행준비

2008/09/11 20:02

http://blog.naver.com/jocky99/60055108446



艺龙旅行网
eLong.com

首页

国内酒店

港澳台酒店

海外酒店

国内机票

国际机票

目的地指南

特约商户

积分广场

English

繁體中文

800-810-1010

400-810-1010

登录

注册

我的帐户

帮助中心

重新搜索

航程类型:
单程

出发城市:
Kunming 昆明

到达城市:
Diqing 迪庆(香格里拉)

出发日期:
2008-09-12

送票城市:
Kunming 昆明

舱位等级:
经济舱

搜索

>> 选择您喜欢的航空公司

>> 选择您喜欢的机型

>> 是否直飞?

昆明 - 迪庆(香格里拉)

搜索航班

填写乘机人

支付配送

核对订单

预订成功

单程 经济舱 出发日期: 2008年09月12日 送票城市: 昆明

即日起至10月31日, 订购机票每张票送90元VANCL服饰礼品卡! [更多好礼及活动详情](#)

选择航班

搜索结果: 共3个航班

您是否按 机型 进行筛选?

排序方式: 价格 起飞时间 到达时间 机型

价格	起飞 / 到达	航班	机型	税费(¥)	退改签	舱位		
¥630 票量紧张	07:00 07:50	巫家坝机场 香格里拉机场	 东航 MU5929	73D	130	退改签	7折经济舱 所有舱位	 预订
¥680 票量紧张	07:00 08:00	巫家坝机场 香格里拉机场	 东航 MU5933	737	130	退改签	7.5折经济舱 所有舱位	 预订
¥680 票量紧张	20:10 21:10	巫家坝机场 香格里拉机场	 东航 MU5935	737	130	退改签	7.5折经济舱 所有舱位	 预订

12 · 21C_NOMAD

샹그릴라에서 더친가기

운남여행준비

2008/07/08 12:53

<http://blog.naver.com/jocky99/60052947495>

<http://cafe.naver.com/star114/9519>

배낭메뉴얼 서남지역

운남여행준비

2008/05/23 00:15

<http://blog.naver.com/jocky99/60051449428>

서남 일주 16일 배낭 메뉴얼

♡성도(??)♡

▷ 성도 공항에서 시내 방향으로

성도 쌍류국제 공항(?????)은 시내에서 15km정도 떨어져 있다.

시내로 이동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중국 민항에서 운항하는 민항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시내 중심의 인민남로의 민항 매표소까지 운행한다.

요금은 8원~10원이며, 15분마다 운행하고, 시내까지는 약 35분정도 소요된다. 시내까지 중간에 정차하지 않는다.

택시를 이용하게되면 서문 버스 정거장이나, 성도 북 기차역까지 약 40원정도 주면된다.

▷ 성도 시내 교통편

△ 택시(????) - 성도의 택시는 대도시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고 대부분이 소형이다. 길거리 어디에서나 잡아탈 수 있으며 3km구간 기본요금이 5?정도이다. 기본구간이 지나면 1km당 1.2~1.3원이 추가된다.

△ 버스(????)

성도 시내를 돌아보는데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일반버스는 1원이고, 에어컨 버스는 2원이다.

간단한 버스노선

1? : ???(?) -무후사(???-?) ?????, ????, ????, ???, ????, ???, 인민남로(????), ????, ?????, 무후사대가(?????)

2? : 성도북기차역(????-?) -???(?) ?????, ???, ???, ???, ????

3? : ???-??????????, ???, ????

4? : 서문버스터미널(????-?)-???(?) ??????, ???, ??????, ?????, ???

5? : ??????(?)-???(?)??-????(???, ?????), ?????(?????, ?????, ?????), ????

6? : ???(?)-???(?) ?????, 성도버스터미널(?????), ??????

7? : ???(???)-???(?) ?????, ?????, ???, ????

43? : ???-????(?) ?????, ???, ?????, ?????, ????

45? : ???????-?????-?????, ??????, ??, ??, ?????, ???

46? : ???-????(?) ?????, ???, ???, ???, ???, ?????, ????

47? : ???(11)-???(?) ?????, ???, ?????, ???

여행할 때 알아두면 편리한 버스는

16로 : 성도북역에서 중심지인 인민남로를 경유해서 기차남역까지 연결

17로 : 두보초당과 청양궁을 연결

35로 : 사천 대학과 망강루 공원 연결

▷ 추천 여행지

낙산대불-낙산대불은 성도의 남쪽에 위치한 낙산시(???)의 민강(??), 청의강(???), 대도하(???) 세개의 강이 모여 흐르는 지점에 위치한 룡운산(???)절벽을 깎아 만든 것이다. 아미산에서는 동쪽으로 31km떨어져 있다.

"불상이 하나의 산이요, 산이 하나의 불상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가 거대하며 대불의 높이가 71m, 머리 높이가 14.7m, 귀 길이 6.72m, 코 길이 5.33m, 눈썹 두께가 24m나 된다. 대불 주위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둘러 앉을 수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석각 불상으로 꼽힌다. 불상의 뒤편의 절벽에는 해사동(???)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굴이 있는데, 이는 대불을 만들기 시작한 해통법사가 기거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대불은 당나라 시기였던 713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해통법사가 죽고 난 뒤인 90년이 지나서야 완성되어졌다.

대불을 구경하는데는 배로 건너가 산을 돌고 버스로 돌아오는 방법과 산에 오르지 않고 대불만 보는 방법이 있다.

교통-성도 북문, 서문, 신남문 터미널에서 버스가 수시로 있다.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며, 요금은 약 20~45원이다.

터미널에 내리면 낙산대불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4원)이다.

요금-대불 입장료 40원

유람선(대불을 정면에서 보려면 별도의 요금을 내고 강을 건너야 한다. 소요시간 1시간 30분) 30원

청성산(???)·성도에서 약66km떨어진 거리에, 도강언에서는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성산은 푸른 나무들이 성벽처럼 둘러싸인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해발 1.600m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산 전체에 도교 사원이 70개나 되었지만 현재에는 건복궁(???), 천사궁(???), 조양동(???), 상청궁(???)등 38개의 사원이 남아 있다. 또 이곳의 천연적인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는 금편암의 석순봉, 장신산 등이 있다.

청성산은 전산, 후산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 전산을 우선적으로 본다. 전산에는 건복궁, 상청궁, 천사동등 많은 도교 사원이 있다. 청성산 문 못미처 오른쪽에 건복궁이 있고, 문을 통과해 계단을 따라가면 천사동으로 가는 길과 월성호로 갈라진 길이 나온다. 시간이 없다면 월성호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인 상청궁에 오른후 조양동, 천사동 방향으로 하산하면 된다.

교통·성도기차역 광장과 서문터미널에서 10분 간격으로 버스 운행. 소요시간 약 1시간30분. 요금 7.5원~12원

도강언에서도 30분 간격으로 버스 운행. 도강언을 먼저 본후 청성산을 보면 좋다.

요금·입장료 60원 편도케이블카 30원/왕복 50원(07:00~18:30) 월성호 건널 때 배값 4원

도강언(???)·세계에서 유명한 약 2,2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수리시설 중의 하나다.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성도에서 57km떨어진 곳에 있는 도강언은 사천성 서북의 민강(??) 중상류와 타강(??)의 줄기가 갈라지는 곳에 있는데, 근교의 도교 성지인 청성산(???)과 더불어 국가 중점 풍경구로 정해져 있다. 이 수리시설의 배공, 관계등을 통해 사천성이 얻은 이익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천부(??)의 나라라는 사천성의 풍부한 농작물의 생산을 받혀주는 기초가 되었다. 때문에 사천의 서북이 높고, 동남이 낮은 지리적 조건을 이용해 이 대수리 시설을 만든 촉나라 군수 이빙과 그의 아들 이량은 사천성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중국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맑은 물을 주는 도강언이 없었더라면 삼국지에서의 유비와 제갈량의 지략은 꽃 필수 없을 것이고, 중국 최고의 시인인 이백과 두보의 주옥같은 시들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곳을 여행할 때 도강언 근처의 산위 전망대에서 도강언 전체를 내려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통·성도기차역 광장과 서문터미널에서 10분 간격으로 버스 운행. 소요시간 약 1시간. 요금 7.5원~12원

개방·08:00~18:00

요금·60원

무후사(???) - 무후사는 중국 3세기를 풍미한 유비와 장비 관우 등 촉나라의 여러 명장을 거느린 전설의 전략가, 제갈공명, 그 제갈량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당이다. 무후사의 이름은 제갈량이 죽은 후의 시호인 충무후(???)에서 유래되었다.

경내로 들어가면 유비전과 제갈량전, 축한의 문.무관 28위의 동상 및 제갈고(???)라 칭해지는 북. 동고(???) 등의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다. 유비전은 정문으로 들어가 최초의 건물인데 황금의 유비상이 안치되어 있고, 벽에는 공명의 정치.군사상의 전략사항으로 유명한 용충대(???)의 액자가 걸려있다. 관우, 장비 등의 문.무관 28인의 상은 옆동(?)에 있고 벽에는 그들의 문장과 업적을 기리는 액자와 연(?)이 전시되어 있다. 제갈고는 공명이 남쪽을 정벌하면서 만든 것으로 낮에는 그것으로 밥을 짓고 밤에는 경보를 발했다고 한다. 또 무후사 뒤편에는 유비의 묘인 혜릉(???)과 문장, 서법, 석각에 모두 뛰어나 삼절(?)로 꼽힌 당비(???)가 있다.

무후사가 정확하게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남북조시대인 420~589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존재하는 무후사는 청대 강희11년(1672)에 옛 터위에 중건된 것이다.

교통-금강 빈관 뒤쪽의 남대가에서 1, 10로 버스를 타거나, 천부광장에서 26번, 이외에도 14, 53, 57, 213, 214번 버스가 무후사 앞에서 하차한다.

개방-08:00~18:00

요금-30원

두보초당(????) - 두보(712~770년)가 4년간 칩거하며 240여 수의 시를 읊었던 곳이다. 759년 겨울 두보는 안사의 난(안녹산(???)과 사사명(???)이 정권 찬탈을 위해 일으켰던 반란)을 피해 현종(???)을 따라 촉으로 피난을 왔다. 친한 친구 엄무(???)의 도움으로 서쪽 교외의 경치가 아름다운 호숫가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이듬해 봄에 초가집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성도초당(????)이라 불렀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초당은 1500년과 1811년 두 차례의 확장공사로 인해 넓이가 20ha가 조금 넘으며 경내에는 대해(???), 시사당(???), 공부사(???), 사능초당(????)의 석비등 건축과 다른 많은 문화재가 있다. 정문에 들어서면 시사당과 두보의 소상(???)이 있고, 양쪽의 진열실에는 두보의 시집과 연구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교통-동쪽버스터미널에서 두보초당까지 가는 35번 버스(교통반점 맞은편의 빈강루에서 타도 된다), 청양궁 맞은편의 청양정가에서 17번 버스를 타고 초당사(???) 앞에서 내려 10분정도 걸어가면 된다.

개방-08:00~17:30

요금-30원

망강루(???) - 당나라 시기의 유명한 여류 시인 설도(???)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고적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송려각(???)이라고 불리우며 현재는 사천성 주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설도는 기녀였지만 일생 동안 대나무를 자신의 지조에 견주어 너무 사랑하여 시를 통해 대나무의 미덕을 찬미하였고, 이 곳에서

약 500여수의 시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까지도 88수의 그녀의 시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 곳에 대나무를 심어 경의를 표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대나무 숲에는 150여종의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 공원의 대나무수가 80%이상 이어서 이 곳을 죽자공원(????), 금성죽원(????) 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다. 원내에 망강루, 탁금구, 음시루등 5채의 건물이 남아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망강루이다. 망강루는 높이가 30m로 위의 2층이 8각이고, 아래의 2층이 사각 모양의 청나라 후기 건축물이다. 또 공원 안에는 설도가 물을 길었다 전해지는 설도정(???) 과 그녀의 동상이 있다.

교통-2, 3, 18, 19, 31, 35 버스를 타면 된다. 사천 대학 박물관에서 도보로 5분

개방-08:00~17:00

요금-5원

▶ 먹거리

성도는 사천 요리의 중심지로 먹어볼 만한 요리가 많다.

마파두부(????)-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천 요리다. 매콤한 맛이 우리의 입맛에 맞다.

궁보계정(????)-닭 가슴살과 땅콩, 말린 고추를 주재료로 해서 볶아 만든 요리. 이것또한 우리 입맛에 아주 잘 맞는다.

단단명(???)-국수의 일종으로 사천성에서 아주 보편적인 음식이다. 고추장과 돼지고기를 국수에 넣어 말아먹는다.

▷ 성도에서 서창으로 이동하기

△ 항공으로 이동하기

성도에서 매일 운항하고, 소요시간은 약 40분, 요금은 약 500원 정도이다.

△ 기차로 이동하기

차번호	유형	시발지	출발지	출발 시간	목적지	도착 시간	중점역	??/?	??/?	??/?	??/?	소요시간
2511	????	??	??	15 :	??	01 :	??	76	119	134	206	10시간

				00		01						1분
5611	??	??	??	21 : 18	??	08 : 01	??? 39	69	83	133		10시간 43분
5621	??	???	???	17 : 45	??	03 : 45	반지화 ???	36	63	77	122	10시간 0분
K113	????	??	??	13 : 44	??	22 : 54	??	79	124	140	215	9시간 10분
K117	????	???	??	18 : 46	??	04 : 14	???	79	124	140	215	9시간 28분
K165	????	??	??	14 : 14	??	00 : 02	??	79	124	140	215	9시간 48분
K924/ 925	??	??	??	19 : 37	??	06 : 00	???	45	75	89	139	10시간 23분
K941	??	??	??	20 : 38	??	07 : 09	???	45	75	89	139	10시간 31분

♡서창(??)♡

서창은 사천성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양산 이족(??) 자치주이다. 해발이 높고, 오염이 적어 공기가 상쾌하다. 달의 성 과 작은 봄의 성이라는 애칭이 있는 도시이다.

평균 기온은 17도이고, 가장 추운 1월 평균 기온이 10도이다. 가장 더운 7,8월의 평균 기온이 24, 25도이다. 작은 봄의 성이라는 애칭이 어울릴 정도로 일년내내 관광하기 좋다.

▷ 서창 시내 교통편

공공버스는 편리하고, 차비는 1원이다.

택시는 기본요금이 3원(소형택시), 녹색 택시가 4원이다.

▷ 추천 여행지

서창위성발사중심(??????)-서창시 서북쪽 60km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70년대초에 건설되었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1984년 첫 위성 발사이래 수 십번의 위성을 쏘아 올렸다. 중국이 2003년 12월말에 쏘아올린 지구공간탐사위성 "탄천 1호"도 서창에서 발사된 것이다.

교통-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약 1시간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200~300원이다.

여행사에서 하루 여행을 모집하기도 하는데 가격은 약 100원(차비, 입장료, 가이드)
요금-50원

공해(??)/노산(??)-공해는 서창시에서 동남쪽으로 5km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고, 지진층에 의해 형성된 사천성내에서 가장 큰 천연 호수이다. 호수의 넓이는 31평방킬로미터이고, 가장 깊은 수심이 34m이다.

노산은 공해에 같이 위치해 있으며, 해발 2,317m이고 산위에는 침엽수로 인해 늘 봄이다.

교통-서창 시내버스를 타면 도착하고, 차비는 1원.

요금-공해 5원 노산 3원

나길산(???)-서창시에서 동남쪽으로 37km떨어져 있으며 주봉은 해발 4,359미터이다.

교통-서창 기차역앞에서 버스를(하루 두 번) 탄다. 약 1시간 가량소요되며 요금은 16원이다.

버스에서 내린후 먼저 선인동을 보고 산을 오르도록 한다.

요금-선인동 28원

양산이족 노예 박물관-1940년대까지 노예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물관이다.

▷ 서창에서 로고호 이동하기

△ 버스로 이동하기

서창에서 로고호행 버스는 아침 6시, 8시 매일 2회 다닌다. 바로가는 버스가 없으므로 영랑(??)까지 가서 미니버스(6~9인승)를 갈아탄다. 영랑에 도착해 버스 운전사에게 로고호행 티켓을 보여주면 연결되는 버스를 알려준다. 요금은 약 200원이며 서창에서 영랑까지 약 6시간, 영랑에서 로고호까지 약 2시간 걸린다. 영랑에서 로고호행 버스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포함이 안되었으면 20원이다.

들어가는 도중에 로고호행 입장권(41원)을 구입한다.

△ 기차로 이동하기

차번호	열차종류	시발지	출발지	출발시간	목적지	도착시간	중점역	??/?	??/?	??/?	??/?	소요시간
-----	------	-----	-----	------	-----	------	-----	------	------	------	------	------

K941	??	??	??	07 : 13	??? 반지화	10 : 33	???	17	28	없음	없음	3시간 20분
K924 925	??	??	??	06 : 04	???	09 : 30	???	17	28	없음	없음	3시간 26분
K165	????	??	??	00 : 06	???	03 : 10	??	30	47	없음	없음	3시간 4분
K117	????	???	??	04 : 20	???	07 : 40	???	30	47	없음	없음	3시간 20분
K113	????	??	??	23 : 00	???	02 : 07	??	30	47	없음	없음	3시간 7분
8623	????	??	???	12 : 28	???	17 : 35	???	30	47	없음	없음	5시간 7분
5621	??	???	??	03 : 49	???	07 : 15	???	15	26	없음	없음	3시간 26분
2511	????	??	??	01 : 07	???	04 : 32	??	30	47	없음	없음	3시간 25분

서창에서 열차를 타고 반지화에 내린 다음, 매일 아침 8시에 장거리 버스 터미널에서 영랑까지 가는 버스를 이용한다. 약 8시간 걸리며 요금은 45.5원이다. 내려서 다시 미니버스를 갈아탄다. 영랑에 도착해 버스 운전사에게 로고호행 티켓을 보여주면 연결되는 버스를 알려준다. 영랑에서 로고호까지 약 2시간 걸린다. 영랑에서 로고호행 버스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포함이 안되었으면 20원이다.

들어가는 도중에 로고호행 입장권(41원)을 구입한다.

♡로고호(???)♡

운남성과 사천성이 만나는 곳. 해발 2,690미터에 위치한 이 호수는 모계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소수민족인 모수족의 근거지로 잘 알려져 있다. 로고호는 평균 수심 45미터의 거대한 담수호이다. 모수족은 호수주변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거나 가축 또는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데 아직까지는 때문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 호수 주변에는 모수족외에 장족, 이족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아가고 있다. 로고호는 그동안 외부세계에 신비의 여인국으로 알려져 왔으나 관광객이 늘면서 점차 개방되고 있는 추세다.

▷ 로고호 내에서의 교통편

낙수(??)-리격(??) 5원, 리격(??)-영영(??) 5원, 로고호-영랑 20원

리격에서 영영까지 바로 연결되는 버스는 없고, 마을에서 언덕으로 1km정도 걸어 올라가서 타야 한다.

▷ 추천 여행지

로고호 유람선-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둘러보며, 호수안에 있는 리무비도를 다녀온다. 25~35원

라마사원-영영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라마사원이 있다. 이 사원에는 120명의 모수족 라마승이 기거하고 있다. 또한 영영에는 작은 시장이 있다.

초해(??)-모수족에게 말을 빌려(80~100원) 초해를 다녀온다. 호수에 수풀이 자라 형성된 초해는 그리 아름다운 곳은 아니지만 하루정도 시간을 내서 다녀올 만하다. 말을 타고 7~8시간 걸린다.

대취(??)-여행자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인 낙수와 리격은 상업화가 많이 된 지역이다. 보다 전통적인 모수족의 삶을 엿보려면 로고호 반대편쪽에 있는 대취를 가보도록 하자. 낙수나 리격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다.

△ 로고호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것

모수족 민속춤 공연-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절에 낙수에서 매일 밤 모수족 민속춤을 공연한다.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모수족 남녀가 손이나 등을 잡고 원을 그려가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특별히 인상적인 춤은 아니지만 시간나면 보는 것도 괜찮다. 낙수 선착장 근처의 빨간등을 단집에서 21:00에 공연한다. 요금 10원

머물곳-로고호 주변에 여행자를 위한 저렴한 숙소가 많다. 낙수나 리격, 대조촌 등에서 민박을 정하면 된다. 3,4인용방은 1인 1박에 10원정도, 2인용 방은 1박에 30원 정도 한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먹을 것-대부분의 숙소나 민박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보통 3~4가지의 반찬이 나오는 모수족 전통음식을 6~8원선에 먹을 수 있다. 낙수에는 비교적 깨끗한 식당이 여러곳 있다.

모수족 인사말-안녕하세요"노자" 감사합니다 "아미지"

▷ 로고호에서 여강가기

여강까지 한번에 가는 버스는 없다. 로고호에서 버스를 타고 영랑(?)까지 가서 여강가는 버스를 갈아 탄다.

처음에 영랑에 도착했을 때 여강까지 가는 버스를 시간과 함께 확인하고, 성수기에는 미리 표를 끊어 놓는다. 로고호에서 영랑까지 약 2시간, 영랑에서 여강까지 약 6시간 걸린다. 금액은 약 54원.

여강에서는 흥태양광장 부근의 여강버스터미널(?????????)으로 버스가 도착한다.

♡여 강(??)♡

운남성 북서쪽 해발 2천미터가 넘는 고지대가 있다. 중국 최대의 기와집 마을과 전통의상을 입고 살아가는 남서족(???), 고풍스러운 구 시가지, 아름다운 계곡과 산등이 볼거리가 많다. 구시가지(고성)은 1997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여강내에서의 교통편

시내는 주로 도보로 걷는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둘러봐도 좋다(1일 15원)

택시의 기본요금은 6원이고, 1km당 1.6원씩 올라간다.

▷ 추천 여행지

옥룡설산(????)-히말라야 산맥의 줄기로 여강에서 15km떨어져 있다. 옥룡설산이란 옥으로 만든 용이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5,596m에 이르고 평균 경사가 40도에 달할 정도로 급하고, 기후 또한 변화무쌍하나 초목이 무성하고 각종 한 대 식물과 꽃이 자란다.

산정상에는 1년내내 만년설이 있고, 빙하 골짜긴 볼 수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4,500m까지 갈 수 있으며, 케이블카에서 내려 30분정도 걸어서 4,700m의 전망대까지 올라 갈 수 있다. 갑작스레 높은 곳에 올라가므로, 휴대용 산소통을 꼭 대여해서 올라가는 것도 좋다.

교통-흥태양대주점 앞에서 7번 버스를 타고 옥룡설산 티켓 판매소까진 간다. 그곳에서 표를 구입한 후 셔틀 버스를 타고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간다. 버스 요금 15원

요금-입장료 45원(백수화, 운삼평도 포함), 케이블카 왕복 165원

운삼평 로프웨이 편도 22원, 왕복 44원. 승마 약 1시간에 30원

구시가지-여강하면 떠오르는 곳이다. 시내의 고성(?)은 사방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곳곳에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고성은 송대에 처음 조성된 곳이라고 하는데 운치있고 아름다운 곳이다. 성벽이 없는 이 오래된 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신비하고 평화로운 곳이다.

요금-시내에 있는 대연고성(????) 40원

흑룡담공원-시내 북쪽의 상산 기슭에 자리한 공원. 공원내에는 명나라때 만들어진 오봉루와 맑고 깨끗한 호수가 있다.

여강에 사는 납서족의 문화를 엿 볼 수 있는 동파문화박물관과 연구소도 있다. 흑룡담공원이나 동파문화박물관에 있는 그들의 고유문자를 눈여겨 보도록 한다. 상형문자같이 생겨서 독특하다.

사방가에서 걸어서 15분정도 걸린다.

요금-25원 동파박물관 15원

백사(??)-여강에서 북쪽으로 8km정도 떨어져 있는 납서족 마을로,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이 운남성을 점령하기 전까지 납서왕조의 수도였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전통의상을 입고 생활하며 주로 납서어를 사용한다. 백사에서 볼 만한 것은 유리전대보세궁(???????). 유리전대보세궁은 명나라때의 건축물로 멋진 벽화가 남아있다. 문화혁명에 많이 훼손되었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뚜렷이 남아있다.

교통-6로 버스를 타고 백사로 입구에서 내려 앞으로 쪽 걸어가면 된다. 버스비는 2원

요금-10원

동파고악(????)-여강에 닿으면 곳곳마다 오래된 음악을 접할 수 있는데, 납서족의 수려한 전통음악으로 부락마다 민간고악대가 있다. 그중 백화(?), 대연(?) 이렇게 두군데가 가장 유명하며, 매년 휴일이 되면 옥천 오봉루내에서 공연을 한다. 대연 고악대는 대부분 70~80세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예의 성숙함을 더해준데 음악소리가 귀에 들릴라 치면 그 매력이 한껏 더한다. 납서 고악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대형조곡인 북석세리(????)가 있으며, 음악계에서는 별시사례(????)라고 부르며, 한어로 백사세악(????)이라고도 부른다. 간단하게 납서족의 전쟁사와 생활모습을 춤과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된다. 한번쯤 저녁에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요금은 3원~50원까지 다양하다.

▷ 여강에서 대리가기

여강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대리버스터미널(?????)까지는 하루에 4번정도 차가 다니고, 소요시간은 3시간, 비용은 일반버스는 35~40원, 대우버스는 50원이다.

혹시 버스가 대리입구 하관(?)에서 내리는 것을 탄다면 하관에서 대리까지 4로버스가 있다.

06:30~22:30까지 수시로 다닌다. 요금은 1원

♡대 리(??)♡

특산물 대리석이 유명한 곳. 대리석이란 이름도 이 지명에서 따온 것. 곤명에서 서쪽으로 400km, 미얀마 국경에서 150km 떨어져 있다. 서쪽에는 히말라야 산맥의 줄기인 창산 19봉이 솟아 있고 하얀 만년설을 볼 수 있다.

이곳은 13세기 몽고에게 망하기 전까지 300년간 대리국의 수도였다. 지금은 이땅에서 3천년동안 살아온 소수민족 백족(??)의 자치주로 남아 있다.

▷ 대리내에서의 교통편

시내에서는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게 좋다. 자전거 대여료는 10~12원이다.

택시는 기본 5원에 km당 1.4원이다.

▷ 추천 여행지

삼탑사(???)-대리의 상징인 삼탑이 있는 절로 당나라때 건립되었다. 삼탑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높은 탑인 천수탑은 높이 70m에 16층이며, 좌우 탑은 10층에 40m이다.

정확한 연대는 불분명하나 9세기경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교통-시내에서 2km정도 떨어져 있다.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간다.

개방-08:00~19:00

요금-53원

대리고성-원나라 1382년에 건축된 고성으로 대리고성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해도 대리 전체가 워낙 작은 도시라서 고성의 남문에서 북문까지 도보로 채 30분이 걸리지 않는다.

교통-하관에서 4로, 8로 버스를 타고 약 40분후에 고성에서 내린다. 차비는 1~2원. 아니면 걸어서 움직인다.

개방-08:30~17:00

요금-없음. 고성안에 있는 대리 박물관을 보려면 5원의 입장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이해(??)유람-대리의 아름다움을 말하라고 한다면, 산 아래에 조용히 정돈된 오래된 도시와 그 옆으로 흐르는 맑은 물 일 것이다. 여기서 물이라 함은 설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담긴 얼하이 호수를 가리키며 단연 이곳 자연 경관의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2번째로 큰 호수로 사람의 귀처럼 생겼다해서 이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바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이며 파도도 심하다.

해발 1,972m높이의 고원에 위치한 호수인 이곳은 창산을 뒤로하고 있으며 총 면적이 248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곳이다. 넓고 조용한 곳이어서 인지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또 이 호수 제일 남쪽에는 얼하이호수 공원이 있는데 창산과 어울린 얼하이의 풍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동북부에는 유명한 꽃들로 구성된 식물원이 있고 화강암으로 된 200개의 등산계단이 있어서 망해루(???)에 올라 이곳을 내려다 볼 수도 있다.

교통-대리고성에서 온다면 2로 버스를 타고(걷기에는 좀 멀다), 하관에서 온다면 6로 버스나 택시를 탄다.

요금-성수기에는 배 한 대당 150원, 비수기에는 120원정도 부른다. 여러사람이 같이 타야 한다.

호접천(???)-대리 창산(??)의 제 1봉인 대리 시내에서 20km 떨어진 운농봉(???) 기슭에 있는 연못으로, 사랑의 전설이 담긴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서로 사랑하는 백족의 연인이 봉건영주에 의해 사랑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샘에 몸을 던졌는데 이후 그 둘이 두 마리의 고운 나비로 변했다고 한다. 샘 옆에는 나비나무라고 불리는 고목나무가 있는데, 이곳에서 풍기는 그윽한 향기 때문에 이곳에는 항상 나비들이 끊이지 않는다. 또 해마다 음력 4월 15일에는 전설속의 연인을 애도하기 위한 전통적인 나비축제가 열린다.

교통-대리에서 미니버스가 자주 다닌다. 삼탑을 본 후 삼탑앞 도로에서 미니버스를 잡아타도 된다.

고성 서문밖에서 미니버스를 타면 약 40분 걸린다.

개방-08:00~19:00

요금-20원

양인가(???)-1,000여미터의 길이에 여행자 숙소와 식당이 밀집되어 있다. 한국인 식당도 있다. 우리로 따지면 이태원을 생각하면 된다.

△ 대리에서 맛보기

삼도차(싼다오차. ???)

백족이 손님을 접대할 때 내놓는 특유의 차이다. 세 번에 걸쳐 다른 맛의 차를 대접한다고 해서 "싼다오"차로 불리운다. 마시는 방법도 독특하다.

첫째맛(제1도)-쓴 맛을 내는 운남성에서 나는 녹차의 일종이다. 인생의 고통을 상징한다.

둘째맛(제2도)-단 맛으로 녹차에 백설탕, 흑설탕, 크림, 치즈등을 넣었다. 인생의 행복을 표현하고

셋째맛(제3도)-표현할 수 없는 맛을 녹차에 생강, 참깨, 흑설탕, 꿀등을 탔다. 실타래처럼 얽힌 인생사를 말하는 것이다.

▷ 대리에서 곤명가기

기차로 이동하기-K448열차가 대리에서 22:02 출발하여 곤명에 다음날 06:19에 도착한다. 요금은 70~95원

하관에서 기차가 운행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4? 버스를 타고 하관으로 이동한다.

버스로 이동하기-곤명과 대리 구간에는 미니버스와 디럭스 버스가 수시로 운행한다. 곤명-대리는 6시간 소요되며 미니버스는 65원, 대우버스는 105원이다. 야간 버스도 있으나 위험하다.

♡곤 명(??)♡

베트남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남단 운남성의 성도로, 이국적이고 평화로운 곳이다. 해발 1,894미터의 고원에 위치. 그리 춥지도 덥지도 않아 가장 추운 2월의 경우 낮에는 28도 정도까지 올라가 초여름 날씨이며 아침과 저녁에는 2도까지 내려가는 늦가을 분위기다.

▷ 곤명내에서의 교통편

△ 택시(????)-기본요금 3km까지가 소형 7원, 중형 8원이고, 1km추가 될 때마다 1.8원씩 오른다.

△ 버스(????)-곤명의 시내버스는 대부분 북경로(???)를 경유한다. 시내의 볼거리는 4,5로 버스를 이용하면 모두 돌아 볼 수 있다. 버스 요금은 구간에 따라 1~4원이다. 그리고 곤명의 대다수 버스들은 안내원이 없다. 필요한 돈 만큼을 준비해서,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린다. 대부분의 버스 첫차는 06:00~06:30이고, 막차는 22:00~22:30이다.

▲ 여행할 때 도움이 되는 버스

4로-대관공원, 동물원 구간을 운행하며, 운남성 박물관을 갈 때도 편리

6로-서산 산림공원

9로-시외의 볼거리들을 볼 때 편리

10로-금전

23로-곤명역과 곤명 북역을 연결

참고로 장거리 버스를 타려면 여러곳의 버스 터미널이 있지만 여행자에게 가장 편리한 터미널은 기차역 근처의 북경로(???)에 있는 곤명 버스 터미널(?????)로 운남성과 귀주성으로 매일 버스가 연결된다.

▷ 추천 여행지

운남성 박물관(??? ???)-3층의 멋진 건물로 오일로(???)에 있다. 1층에는 운남성 소수 민족의 전통 의상, 신발, 옷감 만드는 기구, 소수 민족의 전통 풍습을 찍은 사진과 악기, 가면등을 전시. 2층은 무기류와 청동기 유물. 3층은 고생물관과 혁명관으로 공룡의 화석과 운남성의 혁명 투쟁사를 전시.

교통-동풍로에서 4, 5로 버스를 타고 예술극원(????)에서 내리면 걸어서 2분

개방-화~일요일. 09:00~17:00

요금-5원

대관공원(????)-청나라(1690년)때 처음 만들어져 아발로키테스바라(관세음보살)절이라 불렸으며, 1866년 운남성주 왕지웬에 의해 재건. 공원내에는 커다란 호수와 정자들이 많이 있으나 가장 볼만한 건축물은 대관루이다.

교통-3로 버스 종점인 동물원 앞이나 박물관 앞에서 4로 버스를 타고 반대편 종점인 대관루에서 내리면 된다.

아니면 52로, 54로를 타고 종점에서 내린다. 시내에서 택시를 타면 약 15원 정도 내면된다.

개방-07:00~19:00

요금-10원. 대관루에 올라가려면 2원

원통사(???)-산 전체가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통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사찰로 1264년부터 1368년에 걸쳐 지어졌다. 현재의 사찰은 청나라때 재건한 것으로 운남성에서 가장 유명한 절 중의 하나이다. 주요 건물로는 원통보전(삼존불과 두 마리의 용이 기둥을 휘감고 승천하는 조각이 있다), 팔각정(원통보전 앞 연못위에 세운 아름다운 건축물로 내부에 천수관음상과 옥불상이 있다.) 사찰뒤로 해서 원통산을 오르면 곤명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인다. 원통산 공원안에는 시냇바나의 물소를 비롯하여 팬더등의 동물원도 있다. 원통사만 보는데 약 30분~1시간 소요.

교통-4로 버스를 타고 종점인 동물원에서 내려 5분 정도 가면 된다. 아니면 59로나 기차역에서 101로를 타도 된다.

택시를 타면 약 10원. 시간이 많으면 취호 공원을 둘러 본 후 걸어가도 된다. 약 20분.

개방-08:00~18:00

요금-5원

취호공원(????)-시 북쪽에 있는 공원으로 14세기 중엽 원나라때 조성되었다. 호수에 연꽃잎이 떠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취호란 이름이 붙었다. 공원내에는 4개의 연못과 인공섬이 있는데 모두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교통-1로나 101로 버스를 타고 취호공원에서 하차. 또는 원통사에서 걸어서 20분정도

개방-06:00~18:00

요금-3원. 저녁 7시 이후 건물에 조명이 들어온 후에 입장을 하게 되면 28원

금전(??)-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7km떨어져 있으며 명나라 때인 1602년에 운남성주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명대에 만들어진 금전은 대리로 옮겨갔고, 현재의 금전은 청나라 초기에 청에 반발하던 오삼계가 다시 건립한 것이다. 명칭은 금전이나 실제로는 지붕, 기둥, 문등이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 졌으며 높이가 6.5m 무게가 200t 이상이다

교통-곤명북역 앞의 도로에서 10로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 산길을 따라 10분정도 걸어가면 된다.

71로도 간다. 택시를 타면 20원정도

개방-07:00~19:00

요금-15원

서산 산림공원(??????)-시내에서 서남쪽으로 약 15km떨어져 있다. 용문, 태화사, 섭이묘, 화정사등 볼 만한 곳이 많다. 곤명에서 놓쳐서는 안될 곳이다.

용문(??)은 서산 산림공원안의 뤼한산 벼랑위에 있다. 1781년에 착공하여 1853년에 완성된 석굴이다. 절벽위에 신기하게 뚫려있는 터널식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이 길은 겨우 두사람 정도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관광 시즌이 되면 사람들로 정체가 되기도 한다. 이 돌계단 1,333개를 올라가면 약 300m정도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용문이라 쓰인 산문이 나타난다. 용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석굴에는 많은 석실이 있고, 이 안에는 불상, 석대등 훌륭한 석각 예술품이 있어 볼 만하며, 곤명호의 조망도 시원하다. 용문에서 돌계단을 내려가면 삼청각이 나온다. (로프웨이를 탔을 경우는 삼청각을 거쳐 용문에 다다른다.)삼청각은 원대 건축물로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다.

섭이묘는 용문행 로프웨이 타는 곳에서 가깝다. 섭이는 중국의 인민 음악가이다. 묘 옆에는 그의 기념관이 있다. 태화사는 1306년 원대에 창건된 절이다.

교통-곤명반점 앞의 동풍동로 근처에서 5로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하차하면 6로 버스 정류장이 나온다. 거기서 6로를 타고 종점에서 내리면 서산공원 입구인 고아(??)에 도착한다. 아니면 양가하(???)에서 5번에서 6번으로 갈아타도 된다. 고아에서 용문행 로프웨이가 있는 곳 까지 걸어서 약 1시간 소요. 고아

에서 미니버를 이용하여 용문행 로프웨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

또는 북경로 운남반점 앞에서 07:30~13:00 사이에 출발하는 미니 버스를 이용해도 된다. 8원, 약 30분 소요.

아니면 곤명호내에 있는 운남민족촌 부근에서 서산 정상까지 가는 로프웨이가 있다. 30원

개방-08:00~18:00

요금-용문 20원, 화정사 4원, 섭이묘 1원, 태화사 3원

곤명호(???)-곤명의 서남쪽에 남북으로 40km, 동서로 8km로 뻗어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6번째로 큰 담수호이다(싱가포르 면적 크기라고 함). 면적이 340㎢ 이며, 해발고도 1,885m에 위치하고 있다. 가장 깊은 곳이 8m로 수심은 별로 깊지 않으며 호수 위로는 유람선도 다니고 있다. 호수 주변으로는 양식장들이 곳곳에 만들어져 있고 서산(??), 대관공원, 정화공원, 석채산 고분군 유적등 볼 만한 명소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교통-24, 44로를 타고 해경공원에서 하차. 서산 공원을 둘러 본후 산위에서 곤명호까지 연결된 로프웨이도 있다. 30

원

요금-곤명호는 요금이 없으나 해경공원을 보려면 8원을 내야 한다.

운남 민족촌(?????)운남성에 거주하고 있는 26개 소수민족 가옥과 풍물, 민속자료등을 재현해 놓은 민속촌, 내부에는 소수 민족의 전통음식을 파는 식당, 수공예품 전시관등이 있고, 관광객이 많은 계절에는 매일 춤과 노래 공연이 열린다. 특히 각 소수 민족의 명절 때는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교통-44로 버스를 타고 민족촌에서 하차. 택시로는 약 15원

개방-08:00~18:00

요금-75원 학생 55원

♡석 림(??)♡

지질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2억 7천만년전의 석림 지역은 망망대해의 밑바닥이었다. 순수한 석회암으로 된 지층은 바닷물이 물러가면서 서서히 육지로 나타나면서 현재의 해발 1750미터의 용기, 많은 비와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 석회암 속의 바닷물 성분과 탄산 성분이 용해되기 시작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풍화 작용을 거쳤고, 마침내 현재의 기기묘묘한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석림은 고원에 형성된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 곤명에서 석림가기

버스로 이동하기-북경로에 있는 곤명 버스터미널에서 버스가 수시로 출발한다. 차비는 10-15원이며, 석림입구에서 1.5km떨어진 곳에 버스가 하차한다. 내려서 걷거나 마차를 이용한다.

기차로 이동하기-기차표는 미리 예매해 놓으면 좋지만, 당일 아침에 기차역으로 가면 구할 수 있다. 석림행 기차표를 파는 곳은 일반 기차표 파는 곳과 틀리다. 기차역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왼쪽 출구 근처에 매표소가 있다. 석림역에서 석림까지는 5km떨어져 있다. 기차역에 나오면 광장앞에 미니버스와 마차가 호객행위를 한다. 보통 5원정도를 부르나 1인당 1-2원으로 흥정을 하면 된다.

곤명에서 석림갈때

차번호	출발지	출발시간	목적지	도착시간	??/?	??/?	??/?	??/?	소요시간
K440	??	08 : 10	??	09 : 46	17	27	27	27	1시간 36분
8902/ 8903	??	10 : 38	??	12 : 35	7	12	12	12	1시간 57분
2006	??	16 : 17	??	18 : 12	17	27	27	27	1시간 55분
2060	??	20 : 41	??	22 : 32	17	27	27	27	1시간 51분

석림에서 곤명갈때

차번호	출발지	출발시간	목적지	도착시간	??/?	??/?	??/?	??/?	소요시간
2059	??	08 : 25	??	10 : 24	17	27	27	27	1시간 59분
1164/ 1165	??	13 : 47	??	15 : 31	17	27	27	27	1시간 44분
8901/ 8904	??	14 : 34	??	16 : 55	7	12	12	12	2시간 21분
K 439	??	16 : 32	??	18 : 05	19	29	29	29	1시간 33분

석림 가보기-입구에 안내하는 나시족 사람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 만약 안내원 없이 둘러 보려면 석림 지도를 사는 것이 좋다. 입구를 들어서면 다리가 있고, 오른쪽에 석림호(???)라고 하는 조그마한 인공 호수가 있다. 정면에 있는 석림 빈관을 끼고 오른쪽 방향으로 대석림 구경을 시작하는게 좋

다.

조그마한 비탈길을 따라 오르면 사자정(???)이 나온다. 이 정자가 있는 산이 사자의 형상이라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림의 전체풍경을 볼 수 있는 첫 장소이다. 내리막길을 따라 가면 붉은 글씨로 석림(??)이라고 쓴 돌 병풍이 있는 광장이 나온다.

잠시 돌들의 기묘함에 취하다 보면 연화봉(???)과 검봉지(???)의 갈림길이 나온다. 오른쪽인 연화봉쪽으로 가면, 걷기에 조금 힘든 돌길이 나온다. 웬만하면 곧바도 길이 나있는 검봉지로 향하는 것이 좋다. 연화봉은 봉우리가 연꽃이 피어나는 형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봉지는 돌이 물에 잠겨 있는 곳으로 한 바퀴 돌게 되어있다. 물 위로 다리를 들어서 구불구불 돌아다니게 만들었다. 검봉지에서 비탈길을 오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이 석종(??)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이 망봉정(???)으로 가는 길이다. 석림에서 좀 헤매는 기분을 맛보려면 오른쪽 석종으로 향하고 순탄한 길을 택하려면 왼쪽 망정봉으로 가면 됩니다.

망정봉은 석림 전체를 보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돌 위에 정자를 지어 놓았는데 그곳에서 보는 석림은 말 그대로 돌의 숲이다. 대석림 구경을 마치고 나오면 잔디밭과 연못을 만난다. 연못에는 붕어, 잉어 등이 놀고 있는데 먹이를 던져 주면 물고기들이 몰려든다. 물고기밥 1봉지에 2원

연못에서 길을 따라 나오면 오른쪽에 소석림이 있다. 잔디밭에 우뚝 서있는 기묘한 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심 부분에 아시마(???)라 불리우는 돌이 있다. 커다란 돌의 모양이 나시족 처녀의 형상으로 되어있는데, 등에 짐을 지고 먼곳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결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전체 7킬로미터 정도의 코스를 도는데 약 2시간 반 정도를 잡으면 될 것이다.

보통 곤명에서 당일 치기로 다녀온다.

요금-80원, 학생 55원

♡구향동굴(????)♡

구향동굴은 일반 책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낯선 곳이다. 심지어 중국인들조차도 잘 모르는 미지의 곳이다. 이곳은 곤명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의 석림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풍경구들중의 하나다. 석림으로 가다가 석림을 30킬로미터 남겨 놓고 버스를 이용해 1시간 정도 산속길을 따라 가면 구향동굴로 갈 수 있다. 이들중의 하나가 구향풍경구이고 이곳에 바로 구향동굴이 있다. 구향동굴로 가는 길

에은 운남 여러 민족들의 촌락이 많이 눈에 띄고, 양중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다. 양중해라는 곳은 좀처럼 바다를 볼 수 없는 이곳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싶은 마음에 바다 해자를 붙여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특히 안개낀 날에 더 멋있다는 이곳 부근에는 대규모의 화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구향동굴은 발견후 관광지로 개발해 놓은게 채 5년이 안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너무 인공적이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입구로 들어가면 에리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잔잔한 협곡에서 10인승 배로 레프팅하는 곳이 나오고 간단히 레프팅을 하고 나서 동굴로 들어가면 된다. 레프팅을 하는 이 협곡은 총 길이가 약 600m로 왕복 약20분이 소요된다. 레프팅을 마치고 되돌아와 다시 작은 길을 따라 좁은 길을 들어서면 높이 80m의 절벽이 이어지고 그 길을 따라 가면 동굴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추울 정도로 시원한 동굴 안에는 종유석과 석순들이 연출하는 장관이 펼쳐지고, 곧이어 이곳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선녀동이 나오는데, 선녀궁(???)은 선가(??)가 거주하던 동굴부로 원명은 선인동(???)이다. 이곳은 선량한 선녀가 살았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 선녀의 모습이 지금은 석화로 굳어져 있다고 한다.

동굴 밖으로 나오는 길에는 300개의 계단이 있고, 가마꾼들이 있어서 흥정해 이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출구앞에는 리프트가 있어서 스키장처럼 타고 출구로 나오면 되는데, 신비한 동굴과 어울리지 않는 듯 하지만 재미있다.

교통-곤명동부버스터미널(???????)에서 의랑현(???)행 버스를 타고 하차(버스비 9원)후, 다시 구향가는 버스로 갈아탄다(버스비 6원)

개방-08:30~17:30

요금-60원, 로프웨이 15원(1,000m 약 10분정도), 구향을 보는데는 총2~3시간이 소요.

▷ 곤명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

곤명은 기차로 올 경우 대개 곤명역에 도착하고, 버스로 오면 기차역에 걸어서 5분정도 떨어진 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 기차역에서 나오면 정면에 곧게 뻗은 도로가 북경로로 곤명역에서 곤명 북역까지 연결되는 도시 중심도로다.

북경로의 중간 지점에서 좌우로 넓게 뚫여있는 동풍서로(????), 동풍동로(????)는 북경로와 더불어 곤명의 중심도로로 곤명 반점, 차화빈관등 많은 호텔과 민항 매표소, 서점, 백화점이 몰려있다. 북경로와 동풍로가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광장은 곤명에서 가장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광장에서 서북쪽으로

5분정도 걸어가면 청년로(???)와 갈라지는 길이 나온다. 청년로는 곤명의 패션가로 상점이 많다.

곤명의 특선인 ???을 먹어보세요(먹는법 : 쌀국수를 더운물에 데친후 향채, 시금치, 파, 계란, 두부, 날 닭고기, 물소고기 편육을 섞어서 닭고기 국물을 붓고 매운 고추기름을 한 숟갈 넣어서 먹는 음식)길거리 식당마다 간판이 붙어 있고 가격은 5원에서 50원까지 천차만별. 처음에는 날 닭고기를 보고 기겁을 했으나, 익지 않을까봐...의외로 잘익고 먹을 만하다.

▷ 곤명에서 귀양가기

차번호	출발지	출발시간	목적지	도착시간	??/?	??/?	??/?	??/?	소요시간
K110	??	09 : 20	??	21 : 48	76	126	146	234	12시간 28분
K168	??	16 : 49	??	05 : 02	76	126	146	234	12시간 13분
T62	??	18 : 44	??	05 : 44	87	137	157	245	11시간 00분
2080	??	19 : 31	??	07 : 54	76	126	146	234	12시간 23분
A82	??	22 : 05	??	12 : 33	43	76	93	151	14시간 28분

♡귀 양(??)♡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귀주는 원시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어서 산, 호수, 나무, 동굴등의 천연자연환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며, 귀주는 중국에서 가장 큰 황과수 폭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의 수렴동은 가히 기경이어서 중국 tv 시리즈인 서유기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을 정도이다.

지리적으로도 동쪽은 호남, 서쪽은 운남, 북쪽은 중경과 성도, 남쪽은 광서와 경계여서 지세가 매우 복잡하고 기후 또한 다양하다. 귀주는 중국 평균 일조량으로 따져도 그 우위에 있어 ?????이라 하여 귀주의 성도인 귀양의 한자를 ??이라 쓴다는 여담이 있다.

▷ 추천 여행지

시내 중심 관광 : 검령공원(????)-화계공원(????)-천하담(???)-갑수루(???)

외곽관광 : 흥풍호(???)-안순시(???)-용궁-황과수폭포(?????)-천성교(???)

동남부 외곽 : ???→??→??→???????????????

남부 외곽 : ???→??→??????→협??, ???

북부 외곽 : 귀양?→??→????→????→??, ?사천남부

위의 5가지 여정은 귀양 여행시 추천 코스이나 내국인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시내와 근처 외곽인 두 번째는 권장코스이다. 비경은 두 번째에 집중되어 있다.

▷ 귀양에서의 교통편

△ 버스(????)-귀양 시내에는 30여개의 버스 노선이 있다. - 매 노선당 1원

교외선 20여노선, 중형버스 30여 노선이 있다. 그중 1로, 2로 버스가 밤새 기차역과 검령공원을 운행하며 26로, 38로가 각각 시내에서 하병공원, 화계 공원, 천하담을 운행하고 갑수루는 14로를 이용한다.

△ 기차(??)-외곽에 위치해 있는 황과수 폭포나 용궁 혹은 도균이나 앞서 언급한 남부 외곽의 관광을 위해서 귀양에서 열차가 왕복으로 다닌다.

△ 장거리 버스-귀양에는 세 군데의 버스 터미널이 있다. 가장 큰 버스 터미널은 연안서로(????)에 있고, 기차역 근처 성체육관(????)옆에 있는 해방로 터미널에서는 안순으로 가는게 편리하고, 이외에도 귀양역 광장에 가면 황과수 폭포, 안순, 용궁으로 가는 관광버스가 많다.

△ 흑 비행기릉 이용하여 도착했을 때-귀양의 비행장은 귀주 성내의 유일한 비행장으로서 시내로부터 9km정도 떨어져 있다. 시내로 나오는 방법은 민항 매표소 주차장에서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 금액은 10원이며, 시내까지는 아주 가깝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마오타이주의 거대한 모형도 볼 수 있다.

귀양에서는 택시보다 버스를 권유한다. 웬만한 관광지는 대부분 외곽이므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중에 택시를 탔다면 기본 30~50원은 각오해야함.

▷ 추천 여행지

검령공원(검령공원)-검령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원으로서 검령산에는 1500여가지의 나무와 1000여

가지의 약재가 산재하고 있다하고, 공원내에선 원숭이도 볼 수 있다.

교통-1,2로 버스를 타고 검령공원에서 하차하여 노점상이 많은 도로를 따라가면 공원 입구다. 77로 중형버스를 이용해도 된다.

화계공원(????)-귀양시 남부에서 17km떨어진 곳에 위치. 화계 공원의 경치가 4계절이 같다하여 귀주성 유람 코스중에서도 유명한 곳으로 1938년에 건설되었다. 화계 공원은 총 7가지의 풍경구로 이루어졌는데 하탄(??), 천하담(???), 연루마림(????), 청암고진(????), 검도맹관(????), 고파(??), 소벽(??)이다. 그중 하탄에 속한 화계 공원이 가장 수려하다.

화계 공원을 3부분으로 나누어서 관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0km의 강변과 같은 ??을 따라 흐르는 ???의 풍경이고, 두 번째는 명, 청시대의 건축물 양식을 띄고 있는 청암고진이며, 세 번째는 자연풍광과 민속풍경이 어우러진 ??이다.

교통-203, 206로를 타고 하차-2원, 하병공원 앞에서 26로를 타고 화계 공원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공원안에서 조그만 미니버스로 돌아 볼 경우에는 약 30원 소요.

홍풍호(???)- 귀양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는데 홍풍호와 백풍호이다. 그 중 홍풍호는 귀주의 중부 청진의 팽패현에 위치하고 있다. 귀양에서는 33km, 안순으로 부터는 77km 떨어져 있다. 호수 면적은 57평방킬로미터로 북경의 십삼릉담보다 무려 13배나 큰 귀주성 최대의 인공호수다. 배를 타고 약 30~1시간 정도 유람을 하는데 경치가 흡사 계림과 곤명을 섞어 놓은 듯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선착장 옆에는 민속공연을 하는 식당이 있는데 밤에는 묘족, 동족, 의족등의 소수민족의 공연도 볼 수 있다. 운이 좋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에 야외에서 하는 토요일민속공연을 볼 수 있는데 무료다.

교통-귀양시내의 하병공원앞에 홍풍호에 가는 전용버스가 있고, 하병공원에서 홍풍호까지는 약 20여 분이 소요되며, 약 10원이다.

백화호(???)-시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또한 귀양관광지에서 뺄 수 없는 절경이기는 하나, 귀양에서 3일 이상 머물지 않고는 보기가 힘들다. 이곳 역시 호수 안에 약 1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어 선상에서 돌아 볼 수 있다. 귀양버스 터미널에서 매일 백화호까지 운행하는 정기 버스가 있다. 또는 자림연에서 주창까지 왕복하는 55번 버스가 있는데 이것을 타고 주창에서 내린후 삼륜차로 갈아타고 입구까지 갈 수 있다 (30분에 1대)

황과수 폭포(??? ??)-황과수 폭포의 높이는 74m 넓이는 81m로 중국에서 가장 큰 폭포이기도 하며, 세계에서 몇 안되는 크기의 폭포이다. 황과수는 안순시의 서남부에 인접해 있으며 그 자태는 십여개의 작은 폭포와 경치 수려한 천성교와 수상 석림, 천성동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 황과수 폭포의 낙수 소

리가 너무 커서 십리밖에서도 들린다고 하며, 황과수 폭포 안쪽에 134m정도 되는 동굴이 있는데 이곳을 수렴동이라 한다.(즉밖에 떨어지는 물이 마치 커튼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곳이 바로 서유기에 나왔던 장소임.

교통-황과수는 귀양에서 137km(2시간), 안순에서 40km(약 30분) 떨어져 있다. 귀양역 앞에서 황과수 폭포로 가는 1일 투어버스가 운행한다.(황과수에서 귀양으로 귀환하는 버스가 편도에 30원). 혹은 귀양의 버스터미널에서 흥의 가는버스(50원)을 탄 후 기사에게 황과수 폭포입구에서 내려달라고 한 후 도보로 약 15분.

용궁(??)-용궁은 안순시에서 약 32km 떨어져 있는 국가급 풍경 명승구이다. 말 그대로 5~1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조그만 쪽배를 타고(약 10분~15분) 동굴로 들어가면 그 기괴한 모양이 마치 용궁 속을 배로 다니면서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그 수심또한 깊어서 무섭기도 하며 길이가 15m정도 되는데 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위험해서 관광객들은 도전할 수 없다.

교통-귀양 기차역이나 혹은 안순 기차역에서 황과수를 포함한 투어버스가 많다. 황과수 폭포와 용궁 사이를 연결하는 미니버스가 수시로 다닌다.

요금-35원

▶ 먹거리

귀양의 야시장은 홍콩의 야시장 버금간다. 귀양 사범대학 부근 큰길 대로변에 밤이 되면 야시장이 서는데 그 길이가 약 200m정도 양쪽 길을 따라 귀양 특징의 맛인 매운맛을 주제로한 가재 볶음, 새우볶음 등은 그 맛이 일품이다. 가격또한 저렴하며 새우와 마늘 혹은 고추를 볶아서 한 접시에 5~10원정도. 꼬치구이도 1~3원 사이 이다. 또 한군데의 야시장은 귀양 중심부의 광장이다.

마지막으로 귀양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이다.

중국에서 지금같이 발전하기 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가명주대회라는 것이 열린다고 하는데....그때 사람들은 중국내에서 가난한 성인 귀주에서 출품한 모태주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심사도중 누군가의 실수로 모태주 술병을 깨뜨렸는데 그때 회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향기로운 술냄새에 취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향기의 정체가 모태주 인 것이다. 귀양은 물 맑고 산 좋은 곳이라서 모태주라는 술의 가장 주요 원료인 일조량과 물이 좋아 최상급의 술을 만들어냈다고 하며, 10여년전에 중국술 가격이 2~10원 정도이던 시장에서 모태주는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우며(200~500원) 또한 진짜가 비싼만큼 가짜가 많이 생산 되기도 한 유명한 술이다.

▷ 귀양에서 중경가기

차번호	출발지	출발시간	목적지	도착시간	??/?	??/?	??/?	??/?	소요시간
K140	??	13 : 42	??	22 : 39	62	100	119	187	8시간 57분
K202/ K203	??	10 : 32	??	20 : 10	62	100	119	187	9시간 38분
5608	??	19 : 30	??	05 : 31	62	100	119	187	10시간 01분
1076/ 1077	??	20 : 30	??	06 : 24	62	100	119	187	09시간 54분
1319/ 1322	??	21 : 41	??	08 : 49	34	59	75	120	11시간 08분
5614	??	23 : 10	??	09 : 48	34	59	75	120	10시간 38분

♡중 경(??)♡

중국의 남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1997년 사천성에서 독립하여 중국의 4번째 직할시가 되었다.

인구가 3천 2백만 정도로 단일 도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중경은 볼 것이 많은 도시는 아니나 장강 삼협의 시발점으로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며 중국의 무한, 남경과 더불어 3대 찜통 도시로 유명하다. 중국 사람들은 화로(??)라고 한다.

▷ 중경 관광의 추천 코스

1. 중경에서 시작하여 장강삼협을 보려면 중경에 기차나 비행기로 도착 후 숙박을 배에서 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는 배를 용하여 의창까지 이동한다.(2박 3일 소요), 이때는 계속 배에 승선하여 주변 관광을 하는 것이며 소삼협에서 내려 다른 배를 갈아타고 하는 관광이나 신농계 관광을 할 수 있으니 배 승선 전에 프로그램을 살펴보아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으므로 대부분 설명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진행되며, 그날 그날 일정은 배안의 게시판에 붙여져 있으므로 확인후 일정에 따라 행동한다. 4성 혹은 5성의 배를 타게 되면 중국어, 영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배일 수록 설명은 ONLY 중국어이다. 그렇다면 설명없이 배를 타야 하는데 진짜 재미없다. 누가 뭐래도 장강삼협은 삼국지와 함께 숨을 쉬는 역사적인 관광지이므로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유람은 가히 유람선 200배 즐기기가 된다. 아니면 공부해서 가자.....

2. 장강유람선을 탈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주변 관광을 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은 대죽이다. 중경시내와 대죽을 합쳐 1박 2일이면 충분하다.

▷ 중경에서의 교통편

△ 기차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중경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기차역이 약간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시내까지는 30~40분 정도 소요된다. 역 앞의 도로에 호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미니 버스로 해방비(???)까지 가서 하차하면 된다. 또는 바로 삼협으로 가는 배를 타고자 한다면 역 앞의 버스터미널에서 조천문 부두로 가는 102로 버스를 타면 된다. 1원.

△ 혹시 무한이나 의창 혹은 상해에서부터 배를 이용하여 중경에 도착한 경우는 장강과 가룽강의 교차점에 있는 조천부두에서 하선후 401, 418, 103, 128, 232?나 전차 혹은 미니버스를 타고 해방비가 있는 시내로 향한다.

△ 항공을 이용하여 도착했을 때-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시내 버스는 없고 중국민항 버스가 상청사(???)의 민항대표소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15원.

△ 시내 교통

중경시내의 대중교통은 타도시에 비하여 많이 발달해 있어 108여 노선의 버스와 무궤 전차가 시내외 지역을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05:30~21:00까지이다. 요금은 시내에서는 1원. 근래에 들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위하여 미니 공공버스와 에어컨 버스와 환승투어버스도 운행중이다.

알아두면 좋은 버스 노선은

102?-기차역에서 조천문 부두

103?-상청사에서 조천문 부두

405?-해방비에서 중산로 방향

418?-조천문 부두에서 기차 북역까지

중경의 산타나 택시는 기봉요금 6원, 추가 평균요금 1.60원이다.

△ 도움되는 장거리 버스터미널

이 름	위 치	가 는 방 법
-----	-----	---------

???????	???	버스2, 16, 25, 28, 44, 64, 65?
???????	???	버스6, 28, 35, 61?
???????	???	버스5, 17, 22, 25, 304, 306?
?????	????	버스4, 11, 23, 41, 56, 62?
??????49	???	버스10, 27, 304, 306, ???
?????	???	버스1, 24, 28, 34, 42?
?????	????	버스13, 64?
?????????	????	버스2, 4, 21, 49?
?????????	??????	버스51?
???????	???	버스2, 4, 21, 37, 49, 58, 801?

▷ 추천 여행지

중경시 인민 대례당(????????)-인민로 학전만에 위치한 중경시 인민 대례당은 1954년에 중공되었으며 고민족 양식으로 지은 아주 독특한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건축물의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국태민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다.

교통-103, 104, 105, 111, 112, 122, 215? 버스와 181, 503? 미니버스 이용
개방-08:00~18:00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임시정부가 1945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하던 임시 정부의 마지막 청사이다.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에 있던 임시정부는 윤봉길의사 의거 이후 일본군의 탄압이 심해지자 남경, 항주, 소주, 계림등지를 전전하다가 1940년 중경에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교통-중산 1로에 위치해 있으면 401? 버스 이용
개방-09:00~17:00
요금-20원

장강삼협(????)-장강삼협은 세계 대협곡중의 하나로 강과 산이 웅장하며 수려한 풍광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삼협은 서쪽의 사천 봉절현의 백제성에서 동쪽의 호북 의창의 남진관에 이르기까지. 구당협, 서릉협, 무협의 총칭이다. 전체 길이가 204km이며, 강을 따라 양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강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협곡등 그 수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당애 최고의 시인 이백도 깃구를 남겼다 한다.
교통-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여 유람선을 조천문에서 승선한다. 대부분 2박 3일 코스로 의창이나 사시에 하선하는 데 무한까지 갈 경우 적벽은 보지만 그 중간에 적벽말고는 절경이 없다. 최고 하이라이트는 중경에서 의창까지의 구간이며 갈주담도 통과 할 수 있으며 삼협담 또한 볼 수 있다.

아래의 요금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참고용)

구 당 협	구 당 협	구 당 협	구 당 협	구 당 협	비 고
구 당 협 - 구 당 협	654	347	146	105	물살을 역행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구 당 협 - 구 당 협	530	265	114	83	
구 당 협 - 구 당 협	258	129	56	42	
구 당 협 - 구 당 협	216	108	47	36	
구 당 협 - 구 당 협	148	74	35	25	
구 당 협 - 구 당 협	928	464	218	155	
구 당 협 - 구 당 협	710	355	167	119	
구 당 협 - 구 당 협	340	170	81	59	
구 당 협 - 구 당 협	282	141	67	48	
구 당 협 - 구 당 협	190	95	46	33	

구당협(???)-우람하고 험준한 구당협부터 장강삼협은 시작된다. 길이 33km, 협곡의 강폭은 150m 양 쪽 산봉우리는 1~1.4km에 달한다. 물살이 매우 빨라 물소리가 마치 천둥치는 소리 같다. 구당협을 지나서 무협에 이르기까지는 물살이 완만하다. 무협 12봉을 볼 수 있다.

무협에 들어서기 전에 대녕하라는 곳을 지나치는데 이곳이 바로 소삼협이다. 삼협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소소삼협까지도 유람이 작은 쪽배로 가능했는데 댐이 생기면서 수몰되고 있는 지역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소삼협은 용문협, 파무협, 적취협이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삼협을 능가한다고도 하며, 소삼협 가는 길에 양쪽역시 깎아지른 절벽이 보이며 또한 아주 세세한 구멍들이 보이는데 고대에 이용하던 길이라고 하며 또한 석관묘도 볼 수 있다. 지금은 소삼협 가기가 불가능....그래서 신농계로...소삼협을 지나면 길이 약 40km인 무협이 나온다.

무협(??)은 주변의 기이한 봉우리와 깎아지른 절벽이 볼 만하며, 골이 깊어 수증기가 흩어지지 못해 구름 안개가 절경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서릉협(???)으로 여울이 많고 물살이 세며 암초가 많은 곳이다. 내려 갈 때는 쏜살같고 올라갈 때는 언덕배기를 오르는 것처럼 힘이들며 느리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호북의 의창으로 넘어가면 삼협 관광의 백미는 끝이다.

중경에서 출발하면 봉절을 지나 - 풍도에 내려 귀성을 보고 - 만현 - 파동 - 소삼협 - 무협 - 서릉협 - 갈주담 - 삼협댐- 의창 이런 순서다.

♡대 족(??)♡

중국의 석굴 예술로 말하자면 돈황의 막고굴, 낙양의 용문 석굴, 대동의 운강 석굴로 중국 3대 석굴이라 칭한다.

그러나 사실 사천성 대족현에 있는 대족 석각 역시 석굴 예술로 꼽아도 전혀 손색이 없어 요즘은 거의 위의 3대 석굴과 같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족은 석각의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 현의 40여곳에 무려 5만여점의 석각이 산재해 있다. 그 중 유명하고 규모가 방대한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보정산 석각이고 하나는 북산 석각이다.

북산석각(????)-대족 시내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북산 석각은 약 500M에 걸쳐 290여개에 달하는 불교 석각이 남단과 북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부분은 송나라때 작품이지만 몇몇 석각은 당말기의 작품으로 51호 석각인 삼세불(???)은 당나라 작품중에서도 으뜸으로 뽑힌다.

교통-중경에서 기차역 옆에있는 시외버스(장거리)터미널에서 30분간격으로 대족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 2시간이 소요되며 요금은 30~40원 정도이다. 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약 15분정도 북쪽으로 가면 북산이다.

택시로는 5원정도

개방-08:00~17:00

요금-40원

보정산 석각(???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다. 남송 1179년에 시작되었다. 보정산은 불교 성지 중의 하나로 "하늘에는 아미가 있고 땅에는 보정이 있다"는 말이 있다. 석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육도윤회(????), 부모은중경변상(??????), 지옥변상(????), 천수관음(????)등의 의경변 석화로 벽면에는 본존을 크게 드러내고 그 좌우의 여러단에 각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군상들을 이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교통-버스터미널에서 보정석각 가는 버스가 운행된다. 3원

개방-08:00~17:00

요금-50원

북산 석각과 보정석각 - 보정산 석각은 북산 석각이 무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에 비해 세밀하고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 규모가 화려하고 큰 것이 특징이어서 관광를 하는 분들은 오전에 북산 석각을 먼저 본 후에 보정산 석각을 보는 것이 좋다.

▶ 먹거리

중경화로(????)-사천성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샤브샤브로 알려져 있다. 홍탕과 백탕으로 나뉘어진 국물에 고기, 야채등을 담궜다가 먹는 음식으로 한국 사람 입맛에 꼭 맞는다. 저렴한 곳에서는 4인 기준 50~80원 이면 아주 만족스럽고, 고급스럽게 먹길 원한다면 약 200원 선이다.(4인 기준).

사천성의 음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운맛을 주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입맛에 맞는 식사를 할 수 있다. 몇가지를 추린다면 아래 음식들은 매운맛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어느도시에서도 시켜서 먹을 수 있다.

????(라즈지띵)-닭고기와 고추를 볶은 요리

????(시아쑤니우로우)-소고기와 고추, 생강등을 넣고 볶은 요리

????(탕츄파이구)-돼지갈비에 설탕과 식초를 넣고 끓인찜과 같은 요리

????(궁빠오지띵)-닭고기를 사각으로 잘라서 땅콩과 고추와 함께 볶아놓은 요리

?????(쩐주추피지)-일종의 닭튀김

????(홍요우얼피에)-돼지귀에다가 고추를 찌서 만든 요리

군명에서 볼것

운남여행준비

2008/05/22 23:45

<http://blog.naver.com/jocky99/60051448552>

석림

원통사

원예박물관(세박원)

운남민족촌

구향풍경구(군명에서 90공리)---석림과 ㄱ같이보면됨 택시대절

서산용문 군명에서 15공리

홍토지 멀다 군명에서 160공리나 된다.

다리까지는 4시간 반 버스로

쿤밍 들어오기

운남여행준비

뱅기

대한항공

선택 구간의 주간 항공스케줄을 보여 드립니다.
본 시간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예약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선 항공편 중 14** 편은 인천공항 출발입니다.
타항공사 운항편 (공동 운항편 포함) 기종명의 경우 현재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등록된 기종코드
기준으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대한항공 운항편 기종 표시와는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Seoul(Seoul/Incheon) -> Kunming(Kunming)간 항공편 리스트

출발일자 : 2008년 05월								출발시각	도착시각	경유	기종
편명	19	20	21	22	23	24	2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대한항공 (KE 885편)								19:05	22:35	-	AIRBUS 300-600

<FORM name="weeklySchedule" action="/KalApp/PageController?mode=weeklySchedule" method="post"> </FORM>

※ 출발시각,도착시각 난의 "+1, -1" 의 표시는 날짜변경을 의미합니다

Kunming(Kunming) -> Seoul(Seoul/Incheon)간 항공편 리스트

출발일자 : 2008년 05월

편명	19	20	21	22	23	24	25	출발시각	도착시각	경유	기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대한항공 (KE 886편)								23:55	05:05+1	-	AIRBUS 300-600

※ 출발시각,도착시각 난의 "+1, -1" 의 표시는 날짜변경을 의미합니다.

동방항공

구 간	편 명	출발/도착시간	기 종	운 항 일	운 항 기 간
인천(ICN)/곤명(KMG)	MU2004	2200/0100+1	A333	목,일	2008.03/30~
곤명(KMG)/인천(ICN)	MU2003	0210/0700	A333	월,금	2008.03/30~

운남루트 설정

운남여행준비

2008/05/10 23:24

http://blog.naver.com/jocky99/60051048569

중국 배낭여행의 잘못된 관행 - '루트'는 없고 '거점'만 있는 여행

:show_id_layer(this,'lancemark','OPEN100','90205','443043');"
href="javascript:void(0);">lancemark 2007.01.13 04:23

조회 3,049



[중국](#)

백과사전 연관이미지

I. 중국 배낭여행의 천국인 운남성을 실례로 들어..

‘여행루트’는 없고 ‘거점도시’만 있는 여행계획

쿵밍, 따지, 라장. 사탕그랑라...
여행준비 끝 ??? lancemark™

저는 루트설정이 ‘여행계획의 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여행루트가 가닥이 되면 비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산정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이번 여행에 대한 의욕이 글이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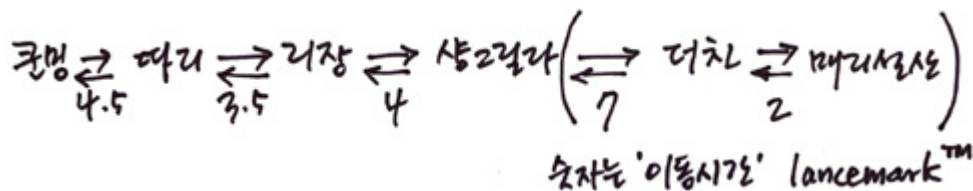
가슴에서 불타오르며, 중국말 못해도 자신감이 용솨음 칩니다.

반면에 당면한 여행에서 ‘루트’가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원인모를 불안감이 엄습하고, 미리 경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지극히 미화한 ‘남의 여행무용담’을 아니꼽고 치사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 찾아 읽거나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태로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 ‘어디 물어 다닐 만한 사람들 없을까’ 하며, 정작 여행에는 몰입하지 못하고 관상쟁이처럼 현지에서 만난 여행객들 얼굴만 보게 됩니다. ‘저 녀이 배낭여행 고수일까 아닐까’ 만을 열심히 추측하면서….

그만큼 루트선정 작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루트선정 작업은 생각 외로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행관련 수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어야 하고, 실시간 현지 정보도 상당히 확보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정보들 중에서 ‘똥’과 ‘된장’을 잘 구별해 내야한다는 것이지요. 왜냐면 서남부지역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가이드북 하나 출판된 것이 없으며, 인터넷 정보 또한 방대하긴 하나, 체계적이지 않고 ‘산만’하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산’보다 클지도….

그런데 배낭여행으로 운남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대다수가 루트계획이 없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셔셔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을 잡지 못하십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이 쿤밍(석림, 구향동굴 포함), 따리, 리장, 샹그릴라 이 지명(저는 ‘거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들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네 곳을 다니는 것이 운남에서 배낭여행을 가장 잘 하는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터넷에서는 항상 운남성의 이 네 곳 사진들만 올라 오거든요. —; 좀더 사전지식을 많이 확보하신 부지런한 분들이래야 위의 4개 거점 이외에, 징훙, 윈양, 로핑 등을 들어서 알고 계실 뿐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갈 것’가 아니라 ‘어디를 갈 것’라는 의지만이 생기겠지요.

그러니 ‘루트’는 없고 ‘거점’만이 있는 여행계획이 수립될 뿐입니다. ‘거점’을 선택하는 것이 ‘루트계획’ 아니냐고요? 글썄요… 다음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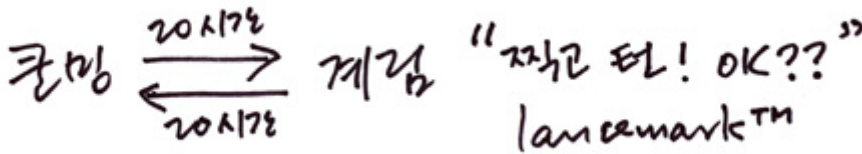


(그림 1) 쿤밍 출발을 전제로 한 관행적 루트

운남에서 가장 유명한 이 코스의 거점은 각각 쿤밍, 따리, 리장, 샹그릴라. 만약에 어떤 분이 이번 운남여행을 이 네 곳을 다니는 것으로 해야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쿤밍’에서 4시간 이동해서 ‘따리’에 도착, ‘따리’를 보신 후 다시 ‘리장’으로 3시간 반 이동, ‘리장’ 주위를 둘러보신 후 다시 ‘샹그릴라’로 4시간 이동. 올라갈 때는 아주 부푼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이동한 12시간을 그대로 되짚어 내려오셔야 합니다. 갈 때는 즐거웠지만 내려올 때는? 한마디로 웬지 모르게 ‘찻찻’합니다. 찻찻한 이유는?

여행 중에 가장 아까운 시간이 바로 왔던 길 되돌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시간 내서 중국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시작된 여행 중에 한번 지나갔던 길을 다시 되짚어 내려온다? ‘샹그릴라’까지 가셨다면 12시간을, 만약 ‘샹그릴라’에서 ‘더친’ ‘메리설산’까지 올라가셨다면, 20시간 이상을 고스란히 반복하셔서 ‘쿤밍’으로 돌아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틀이 걸려서 되짚어 내려오는 시간은 하릴없이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과연 여행루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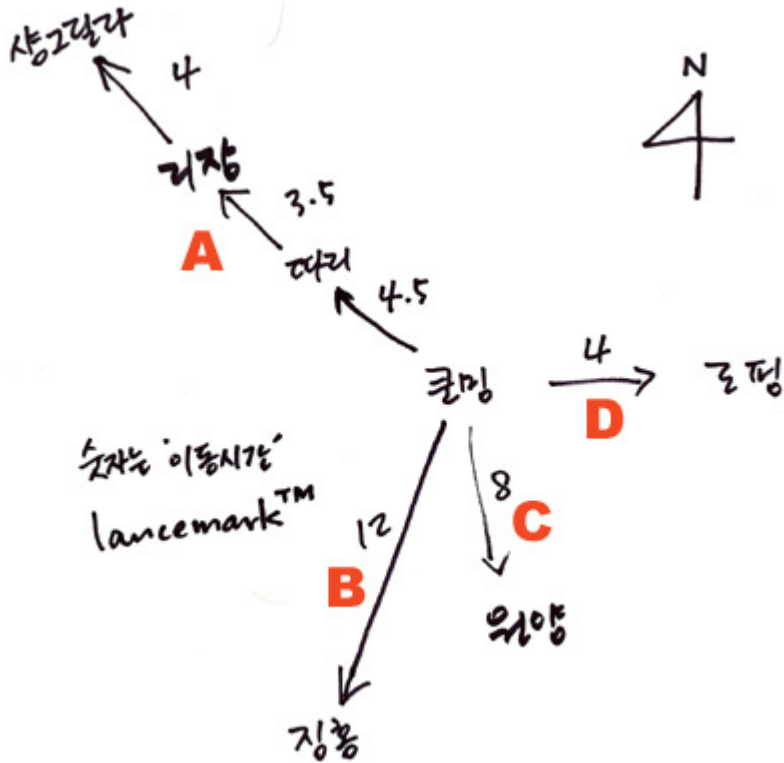
모름지기 여행루트는 그 동선이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순환선을 그리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겹치는 구간이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림 1)에서 처럼의 완벽하게 겹쳐지는 여행루트는, 잘 짜고 못 짜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루트라고 조차 볼 수 없습니다. 20시간이면 기차로 ‘계림’에서 ‘쿤밍’까지 오는 시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쿤밍’에서 출발해서 ‘계림’까지 갔다가 ‘계림’ 관광을 마치고는 다시 ‘쿤밍’으로 돌아와 다음 여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정신 나간 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 2) 쿤밍 - 계림 간 찹고 툰

그런데 왜 유독 운남성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루트는 없고 거점만 있는 여행계획을 짜시기에 그렇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라면 관계없습니다. 도중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면 겹쳐지는 길로 인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세이브된 시간을 모아모아 조잡하면서도 비싼 물건들 쇼핑하는데 냅다 쓰는 것이 또 다른 아쉬움이라도 말이죠. ㅋㅋ. 하지만, 보통의 백패커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럴려면 차라리 ‘캐리어’ 끌고 다녔었겠죠. 여튼 백패커들은 쓸데없는 돈은 최대한 아껴 다른 한 곳이라도 더 돌아보려는 마음상태를 가진 여행객들입니다. 그러기에 완벽하게 겹쳐진 구간 ‘왕복달리기’ 하듯 현재까지 관행처럼 내려오는 쿤밍 출발 운남여행루트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여지까지의 운남 배낭여행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아래의 그림을 보시죠.



(그림 3) 쿤밍 출발을 전제로한 기존 A, B, C, D 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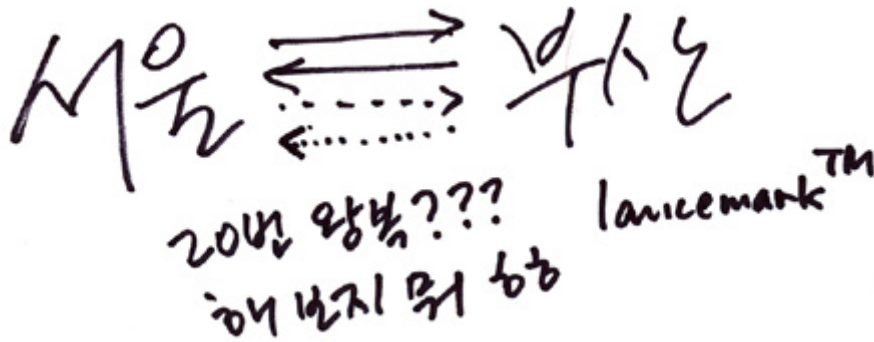
표에서 A루트는 금방 제가 분석한 구간입니다. A구간을 나름대로 정복하신 후에도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백패커들은 일단 20시간을 대단한 인내심으로 되짚어 내려온 후에, 다시 B, C, D의 구간을 왕복달리기 합니다.

예를 들어

B를 선택한 경우라면 '징홍' 한 곳만을 보기 위해서 왕복 12시간을 다시 길에 버릴 용감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만약 그 후 쿤밍에 다시 돌아와서 C를 선택한다면 또 8시간, 다시 D를 가기 위해서 또 4시간. ^^ 이게 도대체 여행 계획이냐 말입니다. 이미 비교적 잘 알려진 이 4구간을 모두 다녀오시려면 완벽하게 반복되는 시간이 무려 42시간 이상입니다. KTX를 타면 서울 부산을 십 수번 왕복했었을 이 시간이, 동일한 경치를 보기 위해 버스 안에서 고스란히 길바닥에

바쳐지는 시간이지요. 이 뿐 아니라 버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비되는 시간은?

게다가 버스가 연착이 되더라도 한다면? π 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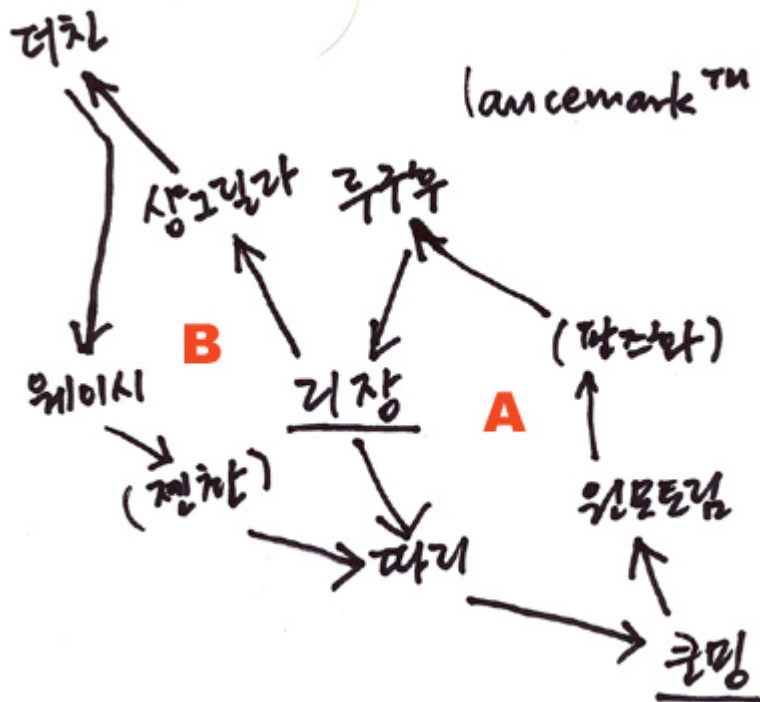
완벽하게 겹쳐져서 왕복하는 루트를 짜는 것을 잘된 루트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현지 특징상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고산지형인 운남에는 도로사정이 턱없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이, 덧붙여지는 그럴 듯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운남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관행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시도도 해보지 않고 지레 포기한다는 점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서커스단에서 코끼리 한 마디를 어렸을 때부터 길렀다고 합니다. 아주 애기인 그 코끼리를 어떤 말뚝에 묶어 놓았는데 사실 그 말뚝은 그리 굵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어리기에 ‘당시의 그 코끼리’는 힘을 써도 그 말뚝을 뽑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미 이런 경험을 오랫동안 하게 되니 나중에는 집채만큼 커버리고 나서도 그 작은 말뚝에만 묶어 놓으면 양전해졌다는 겁니다. 이미 성장해버린 코끼리는 그 말뚝 아니라 쇠기둥도 뽑아 버릴 수 있겠지만, 그 곳에 묶어놓는 순간 관행에 길들여져 제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운남 배낭여행이 이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황 입니다. 우리 한국 백패커들의 여행문화 수준은 이미 아기코끼리의 단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운남에서 우리는 아직도 관행의 ‘말뚝’을 뽑아버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완벽하게 겹쳐지는 길 말고는 아예 다른 길이 없는 줄 압니다. 혹은 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다. 혹시 아직도 식인문화가 남아있을 소수민족에 잡혀가서.. —; 그래서 행여 왔던 길의 발자국을 다시 밟지 않고 내려오면 어찌 될세라, 길 잃을까 늘어뜨린 실타래 조심조심 되감아 돌아오듯 다시 되집어 내려옵니다. 과장이 너무 심했지요 ㅎㅎ.

회화화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중도적으로 표현하면 관행적으로 몰려다녔던 이 길 외의 다른 길에는 볼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운남은 볼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겹쳐지는 루트로만 성지 순례하듯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루트가 가능할까요. 저는 ‘운남의 가능한 여행루트들’을 주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루트’는 없고 ‘거점’만이 있는 관행을 꼬집어 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여러 루트를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림 3)에서의 직선루트 A를 (그림 4)의 두 개의 순환루트 A와 B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림이 벌써 예쁘지 않습니까? ㅎㅎ
(그림 4) A루트에서 ‘(판즈화)’는 경유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로 리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4)의 A루트에서는 (그림 3)의 A루트에서 갈 수 없었던 ‘웬모토림’과 ‘루구후’ 중요한 여행지 두 곳을 더 갈 수 있으면서도 루트가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두 곳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웬모토림’은 최근 장동건 주연의 영화 ‘무극’의 촬영지로서, 흙으로 이루어진 숲이 절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석림보다 훨씬 멋진 풍경이라 생각합니다. (장동건이 토림에 온 까닭을 나중에 토림 설명드릴 때 추가로 말씀드리지요. ^^)

‘루구후’는 태고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운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아직도 유일하게 모계사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모소족’의 삶과 전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A루트로 리장까지 왔을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따리를 거쳐 쿤밍으로 내려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면 다시 B루트로 선택해 바로 따리로 내려가지 않고, 리장 -> 상그릴라 -> 더친 -> 메리설산 -> 웨이시 -> 따리 -> 쿤밍 순서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이 B루트상에서 ‘메리설산’에서 ‘웨이시’로 내려오는 구간은 ‘란창강’을 타고 내려오는 삼강병류구간(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된 상당히 넓은 지역) 중 일부로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때문지 않은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구간 역시 겹치는 구간이 별로 없지요. 다만 구간 이동시 상당히 빠센^^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쿤밍에서 시작해서 다시 쿤밍으로 돌아오는 바람직한 배낭여행 루트설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감히 최고의 루트라고 말씀드릴 순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루트 설정은 운남의 이 서북루트 뿐만 아니라, 동, 서, 남, 북 모든 방위로 가능합니다. 단지 관행상 작은 나무말뚝에 얽매어 그렇게들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더욱이 여행계획을 운남 내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티벳, 사천, 귀주, 광시 등 다른 성에서 진입하거나 빠져 나가는 수많은 좋은 루트를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천천히 소개..)

물론 제가 이런 글을 쓰지 않더라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훌륭한 루트를 개발하시거나 전수 받으시어 적극적인 배낭여행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여행지에서 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정보의 정리’를 통해 ‘초보’ 백패커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는 순수한 마음에서입니다. 스스로 미화시킨 제 여행 무용담을 쓰려거나, 이미 운남과 중국 서남부를 거쳐 가셨을 선배 백패커님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제발 헤아려 주시길...

조잡한 글. 이제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__) 이 글 이후 앞으로 두 차례 더 ‘중국여행의 잘못된 관행’이거나 ‘중국 배낭여행을 준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제 나름의 경험과 분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드시길..

곤명유람

운남사잔-????

2008/11/19 00:40

<http://blog.naver.com/jocky99/60057740606>



운남성

아시아 > 중국

기간 2008.10.23 ~ 2008.11.3 (11박 12일)

컨셉 저렴한 배낭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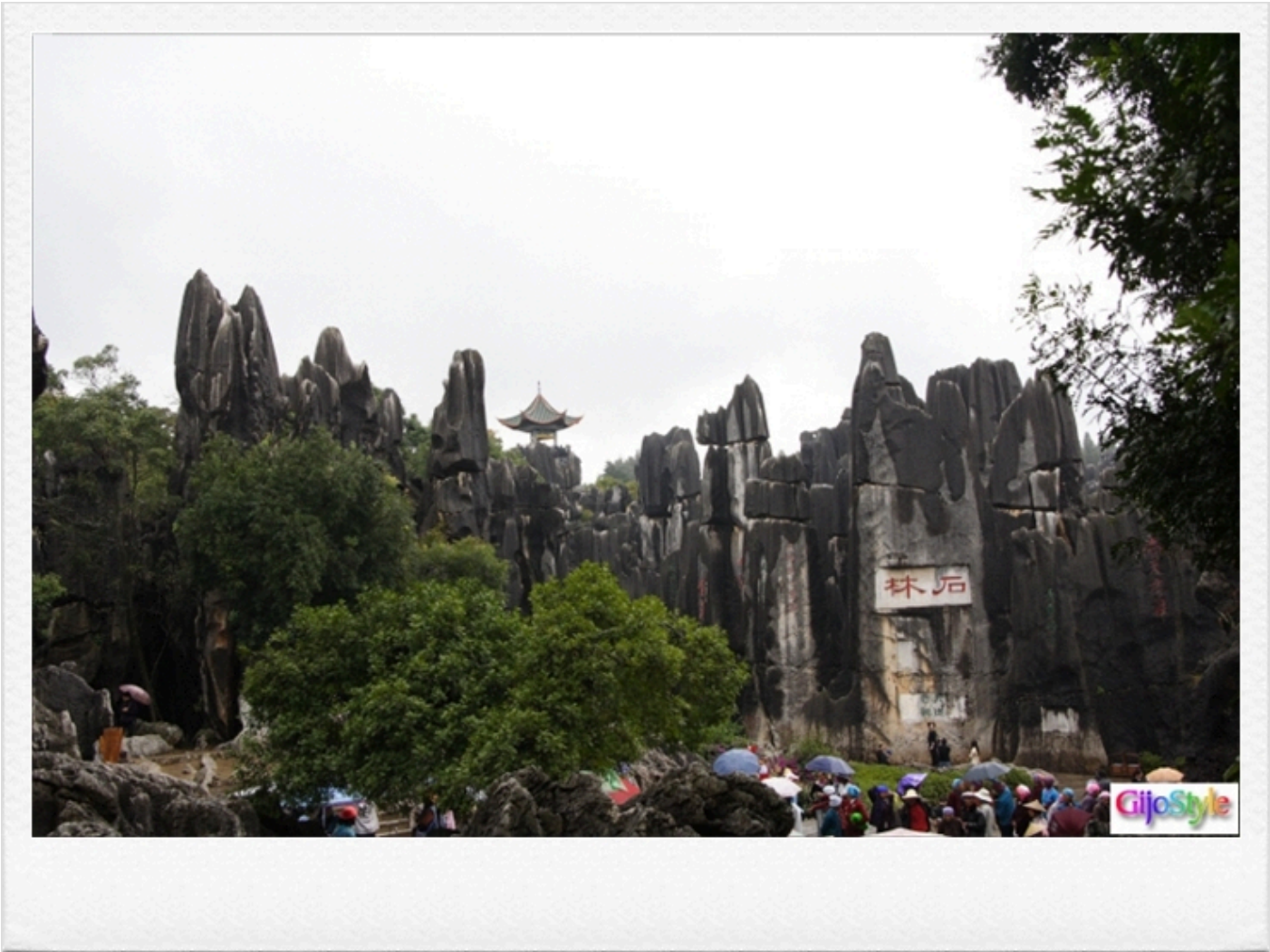
곤명에서 놀아보기

곤명하면 제일 유명한 석림입니다.

바다가 3천만년전에 융기되었다는 카르스트 지형 화석입니다.



석림의 대표사진



전망대와 기암괴석



이렇게 보니 다른 느낌이 들지요..



신기할 뿐



동서사탑 중 서쪽의 서사탑입니다.



동서사탑 중 동쪽의 동사탑입니다.



곤명의 대표음식 과교미선

정말 맛있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금마벽계방



시내 변화가



운남민족촌

이곳 또한 운남을 대표하겠죠.



지누족 한참이나 대화를 나누었던 친구들...

날씨가 춥다고 저모양입니다. 남쪽에서 왔다고...



취호공원



운남성박물관



원통사



뒷쪽에 마련된 태국의 왕(?)이 선물했다는 불상이 모셔진 곳입니다.
건물형태가 특이하죠.



따리 - 대리석의 고장

운남사진-????

2008/11/18 20:35

<http://blog.naver.com/jocky99/60057728392>



운남성

아시아 > 중국

기간 2008.10.23 ~ 2008.11.3 (11박 12일)

컨셉 저렴한 배낭여행

따리에 도착하여 고려정에 짐을 풀고 거리의 학생들 교복이 인상적이다.



고성의 변화가



증명사진 찍는 곳입니다. 오화루



남문 성루에 올라가 내려다 본 지붕위의 풀들이 매력이네요.



운남 18기중 하나, 2위안이고 뽀뽀라고 합니다.



시저우 마을 고관대작이 살았던 집인데 형태가 □ 로 되어있어요.



따리의 대표적인 민족 백족의 전통복장을 하고 공연을 하고 삼도차 시연을 보여주며 같이 마실 수 있어요.



백만불 짜리 미소_ _

백족 전통의상중 모자에 따리의 상징 풍화설월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풍 : 모자 뒷 부분 쪽으로 길게 있는 여러 겹의 실로 바람에 날리는 것을

화 : 가운데 검은색 밑에 있는 꽃을 상징하고요

설 : 제일 윗 부분의 하얀 색의 짧은 수술이 마치 창산위에 눈이 내려 쌓인것 같죠?

월 : 달이 떠서 열하이에 반짝이는 달의 모습인데 꽃 아래 두줄의 보석 같은 것



중국 국가보물 제 1호 따리삼탐입니다.
멀리서 지나가면서 찍었어요.



고성내 시장모습



천주교회당 찾기 무척 힘들었어요..



건물형태가 특이합니다.



NO.3 카페와 고려정을 운영하시는 분 한테 차를 얻어마시던 곳입니다.

아주 근사하게 직접설계를 하시고 지으신 건물입니다.

편안하게 쉬었다 가리라고 합니다. 보이차 잘 마셨어요..



따리에서 곤명으로 가는 고래차 내부
사실은 내부에 화장실이 딸렸다는 말씀...
내 여행수첩이 이차에 있을 텐데... 찾을 수가 없다.



흑룡담 속하고진 백사벽화 세곳을 둘러보다.

운남사진-????

2008/11/18 20:07

<http://blog.naver.com/jocky99/60057726888>



운남성

아시아 > 중국

기간 2008.10.23 ~ 2008.11.3 (11박 12일)

컨셉 저렴한 배낭여행

3중세트다. 오늘은 흑룡담 그리고 속하고진 백사벽화 3군데를 다녀왔다.

흑룡담 입장료 70원 비싸다.



날씨가 좋았으면 옥룡설산의 반영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세계기억유산 동파고적문헌



청개구리가 왕인가?



동파문자다. 자세히 보시길...



속하고진



리장 고성에 비해 한결 한가롭고 여유있게 고성의 거리를 거닐 수 있어서 좋다.



점심요리로 토종닭 휘귀 50원 맛은 끝내 줘요..



속하고진내 티벳사원을 만들어 놓았다.



백사벽화

목씨가 처음 이곳에서 국정을 논하던 곳입니다.



색깔이 멋있네음.



천정을 한 번 올려다 보았어요..



백사에도 이렇게 뒷골목에 상가가 늘어져 있네요.



골목길 민가에 들어서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 주인과 기념 샷.



리장고성

운남사진-????

2008/11/17 11:13

<http://blog.naver.com/jocky99/60057656289>



운남성

아시아 > 중국

기간 2008.10.23 ~ 2008.11.3 (11박 12일)

컨셉 저렴한 배낭여행

리장고성 제일 높은 사자산위에 있는 만고루



리장고성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있죠. 대수차



동파궁



이곳의 지붕은 전부 기와집입니다.
기와 지붕과 홍등



68호 객잔입니다. 저렴한 숙소이고 사방가에서 만고루쪽으로 가다 왼쪽편에 있습니다.



지붕아래 고추를 걸어놓았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전부 대리석으로 깔려있습니다.



만고루에서 내려다 본 고성전경입니다.



고성전경



고성 앞 쪽에 있는 마오쩌둥 동상



사쿠라카페



리장고성의 카페거리 야경



세계문화유산 기념비 야경



고성야경



고성 안으로 수로가 지나갑니다.



나시족 여성들



호도협 트래킹을 포기하다.

운남사잔-????

2008/11/17 10:20

<http://blog.naver.com/jocky99/60057654435>



중국운남성

아시아

기간 2008.10.23 ~ 2008.11.3 (11박 12일)

컨셉 저렴한 배낭여행

호도협 트래킹 안내도

티나하우스에 있는 것을 찍었어요..



호도협 들어서면서 부터 사람 놀라게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나시족이 만들었다는 옥룡설산을 넘어가는 차마고도



현대기술로 만든 다리와 차마고도가 어울려 있네요.



세상걱정 다 사라집니다. 저런곳에 살면 신선이 될것 같습니다.

욕심마저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랫만에 보는 피마자입니다. 티나하우스에 피마자가 아주 큰 피마자가 있어요..



중도협 협곡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여기서 알 것 같습니다.



티나하우스의 나시족샌드위치입니다.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한끼 해결하려던 나의 생각이 틀렸네요...



신천대교 이런 곳에 저런 다리를 중도협에서 올려다 본 신천대교



증명사진 찍는 곳



야~~호~~~

난 행복한 사람...



구름과 산과 집이 잘 어우러 졌네요...



티나게스트하우스



호도협역 차마고도



이런 폭포가 수도없이 많고요 안보이던 폭포가 비가 오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길이 로우패스 입니다.

이길은 차가 다니는데 가끔은 위에서 바위가 떨어지기도 하며 그것을 치우는게 직업인 사람도 있네요.



차마고도 길이 아득히 아래로 보입니다.



푸타취국립공원 그리고 송찬림사

운남사잔-????

2008/11/16 17:07

<http://blog.naver.com/jocky99/60057623848>



중국운남성

아시아

기간 2008.10.23 ~ 2008.11.3 (11박 12일)

컨셉 저렴한 배낭여행

이른 아침 도로를 점령한 말들..



푸다취국가공원 셔틀버스의 장족전통복장을 한 안내원



눈내린 푸다취 국가공원 풍경
벽탐해와 수두호(속도호)를 하나로 묶어 푸다취국가공원으로 만듦



푸다취 풍경



색이 멋있어서 한번 찍어 봄



해발 3000미터가 넘는 지대에 이렇게 호수와 초원이 있다.



호수 위의 이룸모를 풀들이 마치 섬처럼 보인다.



운남의 유명한 원숭이가 먹는 균도 아니고 풀도 아닌 저것



푸다취 풍경



무슨 풀인지??



푸다취 풍경



송찬림사



날씨가 계속 비만 온다.



무슨의미를 두고 저렇게 많은 계단을 두었는 고?
이곳을 올라야만 송찬림사를 볼 수 있는것이 ...



송찬림사 앞에 있는 호수
나름 멋짐



이 사진의 지붕과 아래사진의 지붕을 비교해 보세요...





위뺑을 포기하고 다시 상그릴라로...

운남사잔-????

2008/11/16 16:42

<http://blog.naver.com/jocky99/60057622876>



운남성

아시아 > 중국

기간 2008.10.23 ~ 2008.11.3 (11박 12일)

컨셉 저렴한 배낭여행

페이라이스에서 위뺑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상그릴라로 돌아가다.
백마설산이야 원래 눈이 있으니까 설산인데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내린다.
이것이 이지역에서 내리는 올해 첫눈 이란다.



타르초



염원을 담아 바람에 날려본다.



고개를 내려오면 이렇게 멋지게 수놓은 단풍



이런 길도 있고요..



길가의 풍경들



구름이 산 아래로 내려와...



저기 어디쯤 신선이 살지는 않을까요?...



이런 길도 있지요.



진사강 제일만



뽕즈란 거리



뽕즈란 거리와 가게들



남파해



남파해의 농촌풍경



납파해 풍경 납파해가 보이면 샹그릴라에 거의 다 왔다는 것이지요.



건초 건조대 보기보다 크기가 대단합니다.



남파해의 풍경



메리설산을 보다.

운남사진-????

2008/11/16 16:06

<http://blog.naver.com/jocky99/60057621456>



중국운남성

아시아

기간 2008.10.23 ~ 2008.11.3 (11박 12일)

컨셉 저렴한 배낭여행

더친을 들어서기 전 13개의 스투파가 위치한 곳에 이렇게 생긴 문이 있다.

티벳어로만 쓰여 있네요..



메리설산 원경입니다.



자동차와 메리설산



비래사 가는 도중 가을풍경



비래사 가는 도중 가을풍경



메리설산의 주봉 카와커보 봉



저기랍니다. 하..하..



공주봉이라고 하던데... 맞는지는 모르네용...



빙하가 계곡으로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곳이 망용빙천



13개의 불탑이 세워져 있네요..



더친 시내 1만여명이 살고있는 소 도시



도로공사 중



더친 시내 거리와 건물들



드디어 비래사에 도착

멋진 의자를 만났습니다.

신발끈은 풀어져 있고 휴식을 의미하는 사진입니다.



가까이에는 가을이 저 멀리에는 겨울이 같이 공존합니다.



숙소 창문을 통해본 메리설산

이번 여행중 제일 비싼 숙소비를 내어야만 했다. 240위엔



상그릴라의 풍경들

운남사진-????

2008/11/14 11:18

<http://blog.naver.com/jocky99/60057517303>



중국 운남성

중국 운남성

기간 2008.10.23 ~ 2008.11.3 (11박 12일)

컨셉 저렴한 배낭여행

동족림사를 지나면서 만나는 풍경들입니다.



가을풍경 그대로입니다. 노란단풍이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실력이 일천해서...



내공을 키워야 멋진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도 풍경이 멋있잖아요?



거의 정상 가까운 곳입니다.

백망설산(백마설산)이 곳 나옵니다.



유리창 반사광.....



다음부터 느낌으로 감상하세요..















이것이 백마설산 입니다.









샹그릴라에서 메리설산으로..

운남사진-????

2008/11/14 10:14

<http://blog.naver.com/jocky99/60057515046>



중국운남성

중국운남성

기간 2008.10.23 ~ 2008.11.3 (11박 12일)

컨셉 저렴한 배낭여행

경로 쿤밍 → 샹그릴라 → 페이라이스 → 샹그릴라 → 호도협 → 리장 → 다리 → 곤명 → 인천

샹그릴라 공항에 내렸다. 공항이 디칭, 샹그릴라 두개로 표기되어있네!



출다. 공항 화장실엔 속옷을 끼입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곳이 해발 3200미터인가 그렇다.



이표지판은 어디로 가란 말인지? 급커브란 말이지요..



도로변 한 가한 농촌의 아침풍경



건초더미를 말리는 건조대



평화로워 보인다.



굴뚝의 연기 밥짓는 모양이다.



진사강변의 뽕즈란이 보인다.



이곳이 상그릴라와 더친의 중간에 위치한 유일한 도시랄 것도 없는 마을



벤즈란 시내 황모파 스님이 보인다.

노란색 모자가 유난히 빛난다.



진사강 제1만

물돌이가 350도 이루어 경관을 이루는 곳 이물이 흘러 양자강 장강이 된다.

상류인데 물이 흙탕물이다...

이쪽은 운남성 강념어 저쪽은 사천성 두 성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기념샷--



뽕즈란을 벗어나 조금 더 가면 도로변에 나오는 조그마한 불교사원 동죽림사



오늘은 무슨일이 있는지 분주하다.



승려와 주민 공안까지



인천을 출발 곧명으로 그리고 상그릴라를 향하여...

운남사진

2008/11/10 19:46

<http://blog.naver.com/jocky99/60057343400>



중국운남성

아시아

기간 2008.10.23 ~ 2008.11.3 (11박 12일)

컨셉 저렴한 배낭여행

늦었다!!

정신이 없다.

공항리무진타고 빨랑가자!



서울에 비가 내린다.



신탐승동으로 가는길



기존탑승동에서 새로지은 탑승동간 운행하는 지하철
5분간격으로 운행 좌석은 거의 없다.



곤명행 동방항공 탑승게이트 127번에서 탄다.



MU2003



이렇게 인천처럼 자바라(?)를 사용하는 곳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새벽 2시 다되어서 도착

6시 50분 상그릴라행 비행기 출발 그때까지 어찌란 말이냐????

울며겨자먹기로 택시 15원으로 간 쿤후반점 가격은 100원



다시 찾아온 곤명 국내선 타는 곳
샹그릴라 가는 사람 꽤 많다.



공항내에서 본 이상한 과일 ?? 라는데?..



커피가 하도 비싸 냉수를 마신다.!
아! 시원하다! (속으론 쓰면서리...)



운해에서 일출을 보다.



여명에 비친 옥룡설산의 모습이다.



운해속에 섬이 보인다.



옥룡설산이 햇빛을 받아 오렌지색으로 물들었다.



옥룡설산



샹그릴라 도착 직전 호수갈기도 하고, 습지갈기도 하고....

